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www.innekorean.or.id

7

2008·7

통권 145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SERIES **6**

LA32/40/46/52A650
LA32/40/46/52A610

TV 디자인의 새로운 역사 삼성 Full HD LCD TV 시리즈 6

imagine a television inspired by art



Ultra Clear Panel

100 Hz
Motion Plus

1080P Full HD

Wide Color
Enhancer 2

50,000:1
Dynamic Contrast

소비자 연락처 : 0800-112-8888. Tel) 021-5699-777(hunting) / 삼성플라자 Pacific Place 3층 021-5797-3171 /
삼성코너 찔부부르점 021-8775-6676 / 홈페이지 : www.samsung.com/id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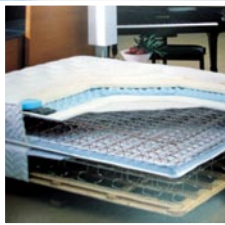
이제 세계는 더 가까워지고, 당신의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가장 편리한 스케줄을 드리는 대한항공—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어디든 편안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구 간	편 명	출 발	도 착	요 일
자카르타 > 서 울	KE628	2140	0640 ^{*1}	매 일
서 울 > 자카르타	KE627	1505	2010	매 일
덴파사르 > 서 울	KE630	0330	1130	월
서 울 > 덴파사르	KE629	2010	0210 ^{*1}	일
덴파사르 > 서 울	KE630	0030	0830	화,목,토
서 울 > 덴파사르	KE629	1710	2310	월,수,금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Network

대한항공 자카르타지점: 021-521-2180



Serim의 기운 다룬다

항상 여러분께 편안함과 행복함을 약속하며
무한가능성에 도전하는 Polyurethane Foam 기업



PT. SERIM INDONESIA
www.serimindonesia.com
Tel. (021)547-6452~6
Fax. (021)546-2739



PT. CELLINDO
Tel. (0264)300-701~9
Fax. (0264)300-712~4



제63 주년 8.15 광복절 기념 행사 안내

8.15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와 같이 뜻 깊은 제6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경축 한마당 잔치를 갖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8.15 경축행사 및 체육대회

1. 일시 : 2008.8.15 (금)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2. 장소 :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대 운동장 및 강당
3. 광복절 기념식 및 체육대회, 경축공연
 - A. 일반 체육대회 : 09:30 ~ 12:00 [운동장]

▷ 체육종목 :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비석치기, 어린이 달리기, 성인 달리기, 엄마와 달리기, 축구
 ▷ 진행 : 팀으로 운영하오니 입장 시 등록 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팀은 당일 날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B. 점심식사 : 12:00~13:00 [운동장]
 - C. 광복절 기념식 : 13:30~14:00 [강 당]
 - D. 경축공연 : 14:00~16:30 [강 당]
- 옥영실 무용단, 한바패(사물놀이), 월화차 문화원, 듀엣 가야금독주, 어린이예술단, 섹스폰 동우회, 소리와 장단, 코리언 서포터즈
4. Lucky Draw 추첨 [강 당]
- ※상품이 푸짐합니다. 모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 골프대회

1. 일시 및 장소
 - A. 일시 : 2008년 8월 15일 (금) 오전 7시 Tee-Off
 - B. 장소 : Halim Lama CC
2. 회비 : Rp. 250,000 (조식, 중식, Caddy Fee, Green Fee포함, 참가기념품, Tip은 개인 부담)
3. 티켓 판매
 - A. 티켓 : 남 - 150매
 - B. 판매 기간 : 2008년 7월 16일~8월 5일 (선착순)
 - C. 판매처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2515)
4. 티켓 구입 시 주의사항 : 성명, 핸디캡,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 구입한 티켓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5. 참가 자격
 - A. 남 : 핸디캡 28이하

**** 주의사항 : 교통이 혼잡하오니 가능하면 톨을 지나지 않고 골프장 뒷길로 오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 애독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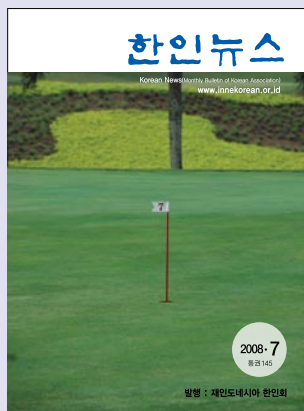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회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거나, 취재를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행사 일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한인뉴스 커버사진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자카르타 근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 한장 이번호의 커버사진이 되었습니다. 한지만 한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깃발의 숫자는 원래는 5였습니다. 숫자 바꾸는 거 어렵지 않으니 7로 고쳐넣고 억지로 7월과 연관을 시켰죠... -.-;;

앞으로 한인뉴스 커버를 책임(?)해주실 교민을 찾습니다. 교민들이 일상에서 담으신 사진중 커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Langsung 한인뉴스(haninnews@naver.com)로 포토스토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매월 채택되신분께 약속하지만 1년 정기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꾸벅 (- -)(_ _)

원고/기사를 보내주세요!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한인뉴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민 여러분 다양한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고 있는 원고/기사를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인뉴스에 게재됩니다.

내 용: 자유 (단 개인 PR / 광고성 기사는 지양됨)
형 식: 취재, 수필, 사진에세이, 만화 등 자유
자 격: 인니 거주 교민 전체

원고마감: 매월 25일까지

*원고내용과 형식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 :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Tel: 021-521-2515(hunting)

Email: haninnews@naver.com



20



8



10



31



22



50



50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강영한, 김재민, 박만규, 김은미, 김남규,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ttp://www.innekorean.or.id

8 한인사회 소식

- 2008년도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및 골프대회 개최
-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인니 친선 도모 체육대회 개최
- 인니 진출 봉제기업을 위한 세계의류 시장 및 경쟁국 생산 동향 설명회 열려
- 아트마자야 대학, '한국여름축제' 열어
- 반둥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 Clemont 금융, 신한캐피탈과 지분참여 조인
- Food for Your Soul, 한국요리 판촉전 열려
- 자필묵연 회원 5명 서울서예대전에 입상
- KOICA & 한국출입국, 인니 이민청 공무원 대상 국내초청 연수 실시
- 한-인니 대나무 사업화 워크샵 개최
- 인도네시아 섬유기술자 한국연수

20 김호영 대사 취임인사

22 인터뷰 이사람 - 한기순

26 건강칼럼 - 과실은 쥬스로, 잎은 약차로...
'구아바' 라는 이름으로 친근한, 부아 잠부 비지

28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짱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2

31 시사포커스 - 폴리가미(Polygamy)와 조강지처(糟糠之妻)

36 조금만 주의하면 현지 생활 ^ OK ^

- 도착 비자 관련 체류 위반 사례

39 제7차 세계한상대회 참가등록 안내

40 6월 '밥퍼' 사역을 다녀와서

42 전자여권 안내 - 여권법이 바뀌었습니다.

44 법률상식 - 주식회사(P.T.)의 이사회(Direksi)

50 인니문화탐방 - 원시와 문명의 여로, Solo에서 족자까지

54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 단체협약의 작성

58 박용민의 영화 Talk Talk - The Incredible Hulk

61 경제리포트

67 한인회원 등록안내

68 생활정보 가이드

73 Movie

74 Books

76 7월 공지사항



2008년도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 및 골프대회 개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난 6월 25일 한인회 운영위원의 정기 회의인 한인회 운영위원 총회를 BSD C.C 에서 개최했다. 총 운영위원 회원중 참석 44인, 위임장을 보낸 회원 27인 등 총 71 운영위원들의 참석으로 회칙 제17조에 의거 성원, 개최됐다.

승은호 회장은 인사말로 “세계 각 지역에 많은 한인회가 있지만 재인니한인회가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많은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또한 인니 지방 11곳의 한인회와 매년 1회 이상의 모임을 갖고 협력 교류를 통해 통합,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인회 운영위원은 인니 한인사회의 중추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한인회의 대내외적으로 성장과 융화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새로 부임한 김호영 신임 대사는 “지난해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있을 때 ‘세계 한인의 날’을 제정하고 승은호 회장을 초대 한인회장대



인사말을 하고 있는 승은호 회장
(위)과 김호영 신임대사



회장으로 추대했다. 인니 한인사회의 인화단결된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인니는 처음이지만 새로운 삶에 대해 대한 관심을 갖고 국익신장과 교민 권익보호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헌신 하려고 한다.”며 신임 인사를 전하고 한인회가 현재 세계 13위 경제국인 본국의 경제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의 활성화도 매우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사관에서 준비하는 문화 프로젝트에 한인회의 많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김재유 수석부회장은 2007년 주요활동, 결산 및 2008년 예산안과 동년 사업계획을 보고가 있었다. 김 부회장은 7월이면 새단장을 끝내고 오픈하게 되는 ‘한인회 문화회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요청하며 특히 문화센터에서 운영될 도서관 운영과 도서 확충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금년 12월 16일로 일정이 잡혀진 ‘2008년 한인회 송년의 밤’의 성공적인 개최와 문화체육, 섭외홍보, 청년분과위원회 등 한인회 각 운영위원회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총회 중간 김우재 한인회 이사는 5월말 새롭게 오픈하는 한인회 문화회관의 도서관 장서 모집을 위한 캠페인에 161권의 장서를 기증하며 도서확충을 위해 운영위원들이 뒤 따라 주기를 바랬고 새롭게 선임된 한인회 이사, 운영위원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총회가 끝나고 오전 한인회 운영위원 친선 골프대회에 대한 시상식 및 럭키드로우 시간을 가졌다. 총회가 있기 전 총 12개조로 편성된 골프대회는 세미샷건 방식으로 시작, 청명한 가을 빛 같은 하늘아래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양승진 운영위원은 총 4 언더파 (총 76타, 핸디 8)로 영예의 Winner 상을 차지했고 이지현 운영위원은 총 79타로 메달리스트를, 김창모 운영위원은 4 언더파로 1st Runner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리고 추길업, 박헌식, 지동주, 김준규 운영위원이 2nd Runner, Longest, Nearest, Lucky Prize의 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이 있는 후 이어진 행운권 추첨 시간은 각 운영위원들이 후원한 선물들을 서로 교환하며 2008년도 한 해의 회계연도를 새로 시작하는 한인회의 친선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골프대회 우승한 양승진 운영위원(왼쪽)



Medalist상을 받은 이지현 운영위원(왼쪽)



항공권을 행운추첨 받은 박헌식 부회장(왼쪽)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인니 친선 도모 체육대회 개최

지난 6월 14일 교민과 인니인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땀방울을 흘린 친선체육대회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체육성과 한인회 청년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체육대회는 특히 두 해전 한국정부가 KOICA를 통해 인니 체육성에 제공한 체육관(Gedung POPKI, 짜부부르 위치)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인니 체육성과 청년분과위에서 제공한 유니폼과 모자로 차려 입은 참여자들은 실내외 축구, 남녀 배구, 배드민턴 등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페어플레이 경기를 펼쳤고 우정을 돈독히 했다. 특히 며칠을 준비해 필승의 각오로 출전한 어머니 배구팀의 열정과 인기는 체육관 내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짧은 시간 준비한 어머니 배구팀은 잘 짜인 팀웍과 플레이로 많은 응원과 박수를 받았다.

경기 전 양측은 각기 준비한 공연을 펼쳐 체육대회의



흥을 돋웠다. 인니측의 전통공연과 한국측의 사물놀이 공연은 대조와 화합이라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양국이 함께 준비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통해 다른 문화와 전통의 양국 우정의 화합을 이뤄냈다.

하지만 의미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교민과 인니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니 체육성과 한인회 청년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친선체육대회를 갖고 행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친선의 장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보다 많은 교민들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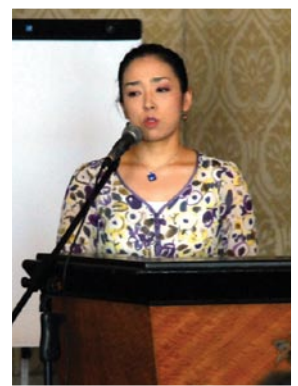
인니 진출 봉제기업을 위한 세계의류 시장 및 경쟁국 생산동향 설명회 열려

지난 6월 26일 자카르타에서는 인니 진출 한인봉제 기업들이 참관한 가운데 KOTRA와 인니한인봉제협회가 주최하는 ‘세계의류 시장 및 경쟁국의 생산동향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김병권 KOTRA 관장, 김경곤 봉제협회장, 김호영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섬유 시장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방향을 잘 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특히 새로 부임한 김호영 대사는 “국내 번성의 봉제 사업이 인니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실감한다. 전체 봉제수출의 4분의 1, 50만 인력고용하고 있는 한인봉제기업들이 향후 최소 10~20년 앞을 보는 경영을 통해 한-인니 양국 지속발전에 기여 해주길 바란다. 원활한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한인기업들에게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이어 양은영 KOTRA 조사관의 세계섬유시장 및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의 동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양 조사관은 2006년~07년 대미국 섬유수출 부분에서 인니와 베트남의 위치가 바뀐 통계를 제시하고 그 원인으로 베트남의 쿼터해제와 WTO 가입,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저임금 국으로의 수입의존도 이전등을 들었다. 이에 양 조사관은 한인봉제기업들의 글로벌 생산전략으로서 세계섬유시장 경쟁구도의 변화 이해가 필요하며, 수출시장의 다변화 노력,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제고, 지역별 장단점 분석을 통한 효과적 생산라인 배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세계적인 섬유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시장 트렌드의 정기적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벤더들의 풀패키지(제품공급, 제품개발, 물류/유통, 제고관리,

양은영 KOTRA 조사관이
세계 섬유시장 및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디자인개발) 납품을 요구하는 구미 대형 바이어들의 요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세계 섬유의 동향에 최신 정보는 www.globalwindow.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김한용 북부지역 봉제협회장(㈜기은무역 대표)은 베트남 섬유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김 협회장은 “지금 베트남은 기대이상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노동법 등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성과의식보다는 면책성 행동의 노동자 모습과 급발전을 통한 심각한 소비성향등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다”고 전했다.

한편 설명회 중간, 봉제협회는 올해 발족 9년을 맞아 협회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봉제 인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봉제협회 발족 9년을 맞아 공로패를 받은 자랑스런 한인 기업인들

아트마자야 대학, ‘한국여름축제’ 열어

지금 자카르타는 한국문화 관련 행사 열풍이다. 지난 6월 14일 자카르타 스망기 지역에 위치한 아트마자야 대학에서는 한국 음식을 주제로 한 일명 ‘여름축제’가 있었다. 아트마자야 대학에서는 주인니 한국대사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삼성, 한강식당 등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을 잘 알릴 수 있는 기관, 기업을 섭외하기 위해 대학의 총장이 직접 대학생들과 함께 해당 기관, 기업을 방문하였고, 본 축제를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을 부탁하였다.

JIKS에서는 중등 여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팀이 자카르타 한인 어린이 예술단과 함께 초등학교생들의 맑고 밝은 합창 공연을 선보였다. 사물놀이팀의 신명나는 연주는 관람하고 있는 아트마자야 대학생, 교수, 기타 모든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합창은 마치 복잡하고 혼탁한 도심의 지나가는 맑은 시냇물 소리와 같이 모든 이들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것 같았다. 참석한 모든 이들은 아낌없는 박수 갈채로 화답하였다.

14일 오전 10:00시에 JIKS의 공연으로 시작한 ‘여름축제’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레스토랑 ‘한강’의 지원으로 한국음식에 대한 Talk Show와 B-Boy, DeJa 등의 춤, 음악의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장 주변에는 미역국, 고추전, 김밥, 비빔밥, 장국 등 한국의 음식이 선을 보였다.

당일 저녁에는 JIKS 전호신 교장과 관계자, 아트마자야 대학 총장(Dr.F.G.Winarno)과 교수들, 본 행사를 진행한 모든 대학생들, 그리고 본 행사를 지원한 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음식을 먹으며, 반동 한사모 회원들의 부채춤, 소고춤과 아트마자야 대학생들의 앙골롱 연주를 관람하였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진지한 주제가 되어 교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행사를 주관한 아트마자야 대학 생명공학과는 매년 한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에 관련된 공연과 전시회를 내용으로 진행하는데, 올 해는 한국을 주제로 ‘여름축제’ 개최하였다. 앞으로 인니 대학교에서 주도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고 넓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반동 한인회장배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반동한인회(회장 엄정호 PT ING대표)에서는 2008년 5월 20일 한인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반동인다골프장에서 개최하였다. 대외관에서 안명수 공사님을 비롯 자카르타 교민, 보고르 교민 그리고 타지역 교민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는 여러 교민기업 및 교민들의 찬조로 다채로운 선물 추첨이 있었으며, 시상행사와 함께 오랜만에 많은 교민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며 교민화합의 장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녀회(회장 박영희 PT.INDORIA TEX대표)에서 바자회를 열어 현지 지역주민들에게 저가 판매를 하였으며, **반동한인 홈페이지** (www.bandung.gg.gg) 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한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첫 출발로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점차 학생, 교민들간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구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반동은 자카르타와 고속도로 개통 이후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인교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한인회 행사 또한 다양해지고 여러 지역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우승에 신동천 사장(PT.Nice Chemical 대표) 77타, 여자 우승에 송태홍 한글학교 교감 선생님 88타를 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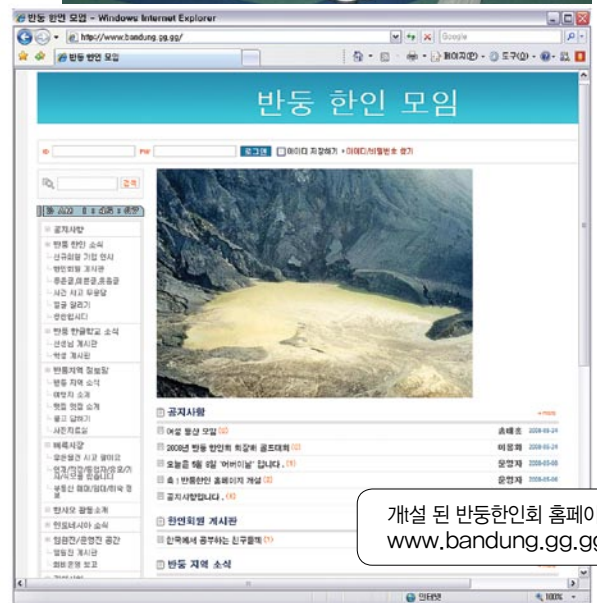
반동한인회는 올해 가을 추석맞이 체육대회를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 앞으로 반동한인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반동교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



남자 우승자



여자 우승자

개설 된 반동한인회 홈페이지
www.bandung.gg.gg

반동한인회 집행부





Clemont 금융, 신한캐피탈과 지분참여 조인

지난 6월 11일에 리즈칼튼 호텔에서 코린도 그룹의 자회사인 종합금융회사 PT. Clemont Finance Indonesia는 한국 내 최고의 종합 금융그룹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신한 캐피탈과 지분참여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지분 참여를 계기로 PT. Clemont Finance Indonesia 는 납입 자본금을 250억 루피아에서 1,000억 루피아로 증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코린도 그룹의 중공업 사업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용차 판매에 따른 할부 금융 영업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의 리스 및 팩토링 금융 수요에 더욱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신한 캐피탈은 이번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국내 여신 업계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 하게 되었으며, 우수한 금융 노하우를 가진 신한 캐피탈은 PT. Clemont Finance Indonesia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고 리스 및 팩토링 금융에 관한 각종 우수한 금융 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며 또한 PT. Clemont Finance Indonesia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Food for Your Soul

한국요리 판촉전 열려

본 행사를 기획한
JW Marriott Jakarta에
근무하고 있는 강은정씨

자카르타의 JW Marriott Jakarta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인도네시아에 한국요리의 참 맛을 알리는 음식 판촉전, 'Food for Your Soul' 행사가 열렸다. 오후 늦게 오픈 행사를 치렀지만 많은 교민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색동옷을 곱게 차려입은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은 동요와 한국의 가락이 물어나는 합창공연으로 음식의 맛과 더불어 한국의 멋을 톡톡히 전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 2년 전 마지막 한국음식 판촉전 이후로 그 맥이 끊겼다가 인도네시아에 일고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다시 음식행사를 하게된 동기가 되었다고 전한 JW Marriott Jakarta에서 근무하는 장윤정씨는 이번



곱게 색동옷을 차려입고 공연하고 있는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 모습

행사를 시작으로 매 2개월 마다 정기적인 한국음식전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서예대전 수상자 :

앞줄 오른쪽부터 가현 박양숙, 자은 김영덕,
여향 김종심, 우현 임채실, 취은 김효경씨.



자필묵연 회원 5명 서울서예대전에 입상

-자은 김영덕씨 어려운 관문 뚫고 영예의 특선-

붓과 먹의 모임인 자필묵연의 회원 5명이 제13회 서울 서예대전에 입상했다.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시를 하게되는 이번 공모전은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서울특별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공모전이다.

해외 교민으로서 당당히 입상을 한 영예의 작가들은 취은 김효경(한글 서예), 여향 김종심(사군자), 가현 박양숙(사군자), 우현 임채실(한문 서예), 자은 김영덕(한글 서예) 등이다. 특히 자은 김영덕씨는 빼어난 작품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특선으로 최종 확정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서울 서예대전의 경우 심사를 통해 대상 우수상 수상자와 특선 입선이 가려지면, 특선 이상의 후보작 작가들은

일시에 심사위원들이 참관한 장소에서 회호를 하여 이를 통과해야 특선 확정이 된다. 회호는 심사 발표 후 바로 다음날이어서 자카르타에 사는 자은 김영덕씨는 여건상 이에 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회 운영측과의 협의에서 대안으로 회호장면을 담은 영상자료를 제출키로 협의 하여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은 인재서당과 재인니 한국부인회에서 취미반 활동으로 서예반에서 꾸준히 실력을 닦고 있는데, 그간 자필묵연(자카르타에서 필묵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임) 정기전이나, 부인회 총회 행사를 통한 전시 등 몇 차례 발표전을 가지면서 그때마다 노력하는 면모를 보인바 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특선을 한 김영덕씨는 “공부하는 한 과정으로서 출품한 것인데 특선이라니 얼떨떨해요. 저보다 더 실력있는 회원들이 있는데 제가 운이 좋았어요.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노력해야지요. 가르쳐 주신 인재 손인식 선생님과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했다.

자필묵연의 회원들 중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권위 있는 또 다른 공모전 출품을 위해 맹렬히 연습 중인 회원들도 있어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예의 특선을 차지한 자은 김영덕 씨

KOICA & 한국출입국, 인니 이민청 공무원 대상 국내초청연수 실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 한국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인도네시아 이민청 공무원 12명을 한국으로 초청,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 행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금번 연수는 올 4월 초 인니 이민청장 및 주요국장 4명을 한국에 초청 한국출입국과의 고위층 교류 정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국의 문화와 역사, 출입국 심사시스템, 체류외국인 관리시스템, 출입국 사범 처리절차, 여권 위변조 감식방안 등의 이해를 통해 인도네시아 이민청 공무원들에게 한국의 선진 출입국 행정 시스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리 행정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출입국 심사 브랜드 KISS(Korea Immigration Smart System)를 바탕으로 출입국 심사의 과학화, 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역량강화 등 세계 일류의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UN 공공행정상 수상 뿐 아니라 국제공항협회의 세계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출입국 심사 서비스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되는 등 출입국 관리에 있어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금번 연수를 통해 이러한 선진 출입국 시스템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출입국 행정의 발전은 물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교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연수에 참가한 인니 이민청 직원들은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 속도와 처리 절차 위변조 감식 능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인천공항과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국내초청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나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KOICA와 한국출입국의 중추적인 사업중의 하나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총 200여명의 인도네시아 공무원이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에 초청되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무궁화유통은 지난 5월 23일 충청북도 도청과 협력하여 '청품명월 내고향 장터'를 무궁화 본점 및 지점에서 개최하였다. 무궁화 유통은 매년 3, 4회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교민들에게 고향의 맛을 전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품들을 이곳 인도네시아에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충

무궁화 유통

2008 청품명월 내고향 장터 개최

충북도 행정 부지사인 이종배 부지사가 참석했다. 이종배 부지사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방문하여 이렇게 수준 높은 교민들이 살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하며 앞으로 충청북도 상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더욱 품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또한 행사 규모를 더욱 크게 하여 교민들 뿐만 아니라 이곳 현지인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인니 대나무 사업화 워크숍 개최

대나무숲 및 관련제품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워크숍이 한-인도네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KITC : Korea-Indonesia Industry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와 인도네시아 농업연구소(BBIA : Center for Agro-Based Industry) 공동주최로 6월 24일 보고르농업대학(IPB)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워크숍은 KITC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2006~2007)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 수행되었던 공동연구과제(과제명 : 대나무숲 생산공정 및 관련제품 적용기술 개발, 한국측 연구책임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양원 박사 / 인도네시아측 공동연구책임자 : 농업연구소 BBIA, Guring Pohan)에 대한 대중화와 상업화 추진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동 워크숍에는 인도네시아측에서 열띤 호응을 보여 산업부, 산림부, 농업부, 과학기술부, 투자조정청(BKPM),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기술평가청(BPPT),

과학기술위원회(LIPI), 보고르농업대학, 파자자란대학, 인도네시아대학, 농업연구소, 화학연구소, 국영은행만디리, 지방자치단체, NGO 등이 대거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연구책임자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담양군청, 관련기업 등이 참여하였다.

축사를 맡은 Mr. Dedi Mulyadi 산업부 연구개발청장은 지난 2년간 한국-인도네시아간 수행된 공동연구과제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향후 사업화를 위한 양국간 긴

밀한 상호협력력을 피력하였다.

1부 워크숍에서는 한국측에서 대나무숲 관련제품의 한국시장 전망, 대나무숲 축조액 상업화를 위한 표준화 기술, 관련제품의 미래활용 및 접근방안을 제시하였고, 인도네시아측에서는 미래 대나무 산업의 전망 및 환경적 가치, 대나무 산업발전을 위한 종의 개발 등이 논의되었다.



오찬 후 이어진 2부 자유토의시간에는 대나무숲 및 관련제품 사업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과 정책, 접근방안 등이 토의되었고, 특히, 인도네시아 대나무 관련 기업들로부터 한국기업과의 거래 및 투자협력, 한국시장 진출, 수출방안

등이 심도있는 토의됨으로써 향후 대나무과제의 사업화는 물론이거니와 대나무 관련산업의 비즈니스거래에 밝은 전망을 예감할 수 있었다.

한국측 연구책임자인 양원 박사는 대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군(탈취제, 정화제, 식초, 화장품, 비누, 유기농소재, 생장촉진제, 축산제, 인테리어, 섬유제품, 대체에너지 오일 등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및 가정용 활용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산 대나무의 빠른 성장력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넓은 재배지역 등이 사업화의 최대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후속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농업연구소 등과 실증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워크숍과 함께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한국-인도네시아간 대나무 공동연구 결과물, 시제품 및 관련 제품들이 전시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보다 높은 관심과 높은 호응을 받았다.

금번 행사를 주관한 KITC김평순 소장은 이번 워크숍의 경우 한국의 앞선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생물자원이 결합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2년간 한국-인도네시아 간에 수행된 해당과제의 연구결과물 및 관련 시제품 등을 전시함으로써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KITC에서는 금년에도 한-아시아, 한-인도네시아간 여타 국제공동연구과제는 물론이거니와 동 대나무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적인 연구비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KITC

(KoreaIndonesia Industry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소장 : 김평순

Plaza Bapindo Citibank Tower 12 Floor, Jl. Jend Sudirman Kav. 54 -

55, Jakarta 12190, INDONESIA

Tel (62) 21 526 6801, 6803, 6804

Fax (62) 21 526 6849

E-mail : kitc_jakarta@yahoo.com



인도네시아 섬유기술자 한국연수

한-인도네시아 산업기술협력센터 (KITC : Korea-Indonesia Industry and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에서 인도네시아 섬유기술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1달 동안 관련 섬유기술에 대한 이론 및 현장기술을 교육하는 연수를 지원하였다.

본 연수는 06년 1월에 맺어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 나경환)과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 : Fahmi Idris) 간 MOU 및 08년 5월에 체결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인도네시아 섬유연구소(소장: Okay Rukaeshi) 간의 섬유기술 협력협약을 토대로 KITC에서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연수자는 모두 6명으로 인도네시아 산업부, 섬유연구소, 반등섬유대학교, 섬유협회, 섬유기업에서 연구.기술자 및 고위관리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교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섬유기술본부(경기도 안산 한양대학교내 소재)에서 담당하며, 교육기간은 08년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정해졌다. 교육을 담당할 섬유기술본부 박윤철 박사에 따르면 연수기간 1달 중 3주간은 이론과 실습위주 교육이 될 것이며, 마지막 1주간은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연수자에 대하여는 KITC와 섬유기술본부에서 왕복항공료, 숙식, 내외부 강사, 현장실습, 교재, 장비, 차량 등은 물론이고, 비자발급비, 인도네시아 출국세, 한국내 보험료 등도 지원하게 된다.

KITC 김평순 소장은 금번 연수는 섬유소재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섬유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섬유기술의 인도네시아 접목 및 정착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지난 6월 17일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부임한 김 호영 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어야 하지만, 우선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수교 35주년을 맞는 올해, 제15대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된 저는 한편으로는 그 동안 국민과 정부가 정성껏 쌓아올려 놓은 양국관계의 결실을 더욱 크게 가꿔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3만여 동포 여러분들이 인화 단결하여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동포사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대사관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부연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동포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더욱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 간 세계 도처에서 700만 재외동포들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오셨고, 동포 한분 한분이 모두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민간 외교관인 셈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동포사회는 가장 큰 외국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크나큰 기여를 해 오고 있음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바라옵건대 이제는 우리 동포사회가 이 나라의 경제적 외형의 성장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범질서를 수호하는 데도 모범이 되는 질적 성장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둘째, 양국간 경제협력이 가속도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살리기’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원·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방안들을 적극 모색하면서, 양국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보완적 경제협력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협력의 주역인 기업인들이 투자와 교역을 더욱 확대·증진할 수 있도록 전 대사관 직원들이 합심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다른 분야보다 다소 소원했다고 생각되는 문화분야의 협력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양국간 문화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문화부문에서의 협력 및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는 21세기의 주요한 soft power를 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대사로 부임한 김 호영 입니다.

성하는 핵심요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류 문화의 열풍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동경하는 시각이 트렌디드라마나 대중가요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인도네시아를 시장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 국민이 서로의 전통과 사고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학술, 예술, 영화, 언론, 관광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도 호혜적인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국내·외 정세 속에서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과제도 아니고, 저 혼자 힘으로 이루어낼 수도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유념하면서 저를 포함한 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소중한 역할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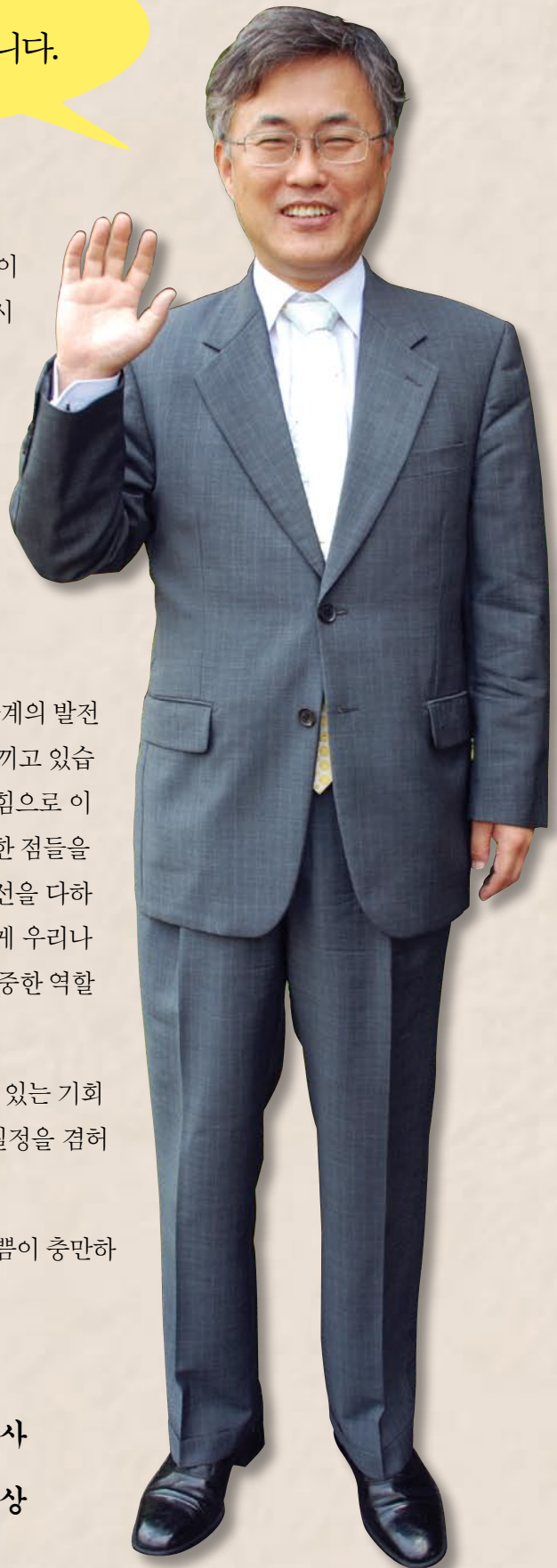
앞으로 동포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갖고자 하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질정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끝으로 동포 여러분 모두 건안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 호영 배상



인터뷰 이 사람

4만 여명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면면을 살펴보면 이제 교민들이 종사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10~20여 년 전 인니 패션계 최고 자리를 10여 년 동안 차지했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교민이라는 것은 영역의 다양성을 지나 그 깊이로 우리 교민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선사하기에 충분한 이야기이다.

한인뉴스는 27년 전 인도네시아인 남편과의 인연으로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매사 열정과 노력으로 'Kisoon Harto' 브랜드 파워를 이곳에 깊이 심었던 패션디자이너 한기순 씨를 만났다.

한 기 순

Kisoon Harto 대표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27년 전 인도네시아에 처음 왔다. 인도네시아인 남편인 Harto씨를 만나게 된 것이 이곳에 오게 된 결정적 계기다. 결혼 당시 남편은 하비비 장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금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과의 인연은 어떻게?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의상디자인을 석사과정까지 전공할 때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도 독일에서 공부하는 중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패션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서 바로 삼성 제일모직에서 근무했다. 결혼 후 이곳으로 건너온 후 남편의 많은 도움으로 하비비 장관 부인 등 고위 공무원 부인의 의상 맞춤을 시작했다. 당시 인니의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밑에서 1년 반 정도 커리어를 쌓고 30이 조금 넘어 호텔사히드에서

'Kisoon Harto'라는 샵을 열었다.

샵이름의 의미는?

아무래도 남편 이름을 넣어야 할 것 같아 제 이름 한기순에서 'Kisoon'을 남편이름에서 'Harto'를 따온 것이다. 샵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았다.

초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을 텐데.

소재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부터, 의상 패턴, 디자인, 봉제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며 맞춤을 하다 보니 손님을 직접 상대해야 하고 그들의 주문사항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야 했기에 일주일에 7일도 모자라도록 바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지금은 기성복을 하지 않나?

15~16년 전 당시 인도네시아 기성복 수준이 좋지 않아 많은 지인들이 기성복을 해보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다. 고

급원단 사용과 상류층 취향의 유럽풍 디자인에 많은 호응을 보내줬고 가격은 비쌌지만 매월 두 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운이 좋았던지 당시 자카르타에 소고, 메트로 등 백화점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백화점 측에서 상당한 프로포즈가 있어 입점하게 되었다. 그 후 10년간 인니 백화점 내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성복으로 전환할 때 맞춤복의 이미지를 끊는 게 쉽지는 않았다.

Q 기성복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나?

당시 유럽풍의 외제품을 즐겨 입고 있던 고위 장관급 부인이나 지방의 주지사 부인들이 저회 옷을 한동안 즐겨 입을 정도로 유명했었다. 이곳에서 스위스, 이태리 수입 원단을 찾기가 수월했지만 유럽을 직접 찾아가 소비자에 맞는 원단을 직접 수입하기도 했다. 현지 디자이너의 경우 맞춤만 했었고 다른 브랜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성복에서는 거의 경쟁자가 없을 정도였다. 기성복의 전환이 처음엔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샘플을 잘 만들어 내면 맞춤보다 훨씬 일하기가 편했다.

Q 지금 백화점 매장수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IMF 이후 서울에 잠시 들어간 후 축소되기 시작했다. 마진 40% 이상을 요구하는 백화점의 횡포에도 이유가 있다. 지금은 큰 딸 Flora가 미국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기반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 백화점 매장수를 줄이고 샵 위주로 가고 있다.

Q 기순하르토가 기성복 명품 브랜드에 경쟁력이 있나?

이전에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뛰어나 마케팅으로 명품파워 전략을 펼치고 있는 대기업 형 브랜드가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Q 세계 패션 흐름에도 관심이 많은 텐데?

한마디로 패션은 유행이다. 처음은 이상하다 해도 남들이 입을 걸 보고 예뻐 보이면 따라 하게 되고 유행이 된다. 세계 패션의 흐름을 보기 위해 이전에는 유럽 등지의 패션쇼 등에 참여해 색상이나 실루엣 등을 파악해야 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인터넷 통해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Q 일반적인 인니 패션은 어떤가?

인니 패션은 4계절이 없는 계절 특성상 유행을 많이 타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천천히 흘러가고 천천히 바뀐다.



Kisoon Harto에서는 이 옷을 추천했다. 젊은 사람에게는 원피스로, 연세 드신 분은 외투와 함께 입으면 기품이 우러러 나온다. 바지와 목이 올라오는 플라티를 입으면 이슬람교인들의 복장으로 변신한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계 젊은 층에서는 화려한 원피스로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다양성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그녀의 실용적인 컨셉이 묻어난다. 디자인은 전통에 세련미를 가미한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문양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일본풍의 나비문양과 색상과 샤링으로 포인트를 준 어깨, 바지의 고무줄 처리 등 패션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전통과 새로움, 신구의 유행을 결합시키고 있다.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품위를 놓치지 않는 그녀의 독창성이 Kisoon Harto가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이유인것이다.

Q 현재 인도네시아의 패션 경향은 어떤가?

이전에는 일본, 홍콩 등지 보다는 유럽영향을 많이 받아 거의 유럽스타일 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정치성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슬람의 옷을 선호하면 공무원과 대중에게 이슬람 옷은 유행이 된다. 몇 년 전부터 손님들 중 이슬람 옷을 찾는 사람이 많아져 현재 Kisson Harto의 50%이상이 이슬람 옷이다. 또한 자카르타 경우 원주민이 많은 남부와 중국계가 많은 북부의 취향과 옷 선호 스타일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단소재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전엔 내취릴 아마포(Linen), 실크, 면 등 원단소재를 많이 썼다. 하지만 IMF 이후 드라이크리닝 등 의상 관리비용이 증가하면서 한동안 내취릴 소재가 쓰이지 않다가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다

Q 지난해부터 인니 정부에서 의상디자인을 포함, 디자인 Power를 통한 인니제품 글로벌화를 표방하고 있다.

인니에서는 굳이 디자인이 좋지 않더라도 외적인 것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인 디자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패션 비즈니스라는 것은 장기간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그 성과



의 미지수로 인해 기피되는 것 같다. 비즈니스 감각이 부족한 디자이너들에겐 그들의 능력을 살려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가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플로라 씨는 사무실이나 주말에 나들이를 갈 때도 입을 수 있으며 디너 초대에도 소화시킬 수 있는 한쌍의 셔츠와 치마를 추천했다. 주로 20,30대를 겨냥한 그녀의 의상엔 그녀가 직접 액세서리도 디자인해 넣었다. 많이 유명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플로라 씨는 뉴욕의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졸업(2005), 1~2년간 뉴욕 유명 패션사의 인턴과정을 거쳐, 두 해전 자신의 이름을 딴 'Flora Harto' 브랜드로 인도네시아 패션계에 데뷔를 했다. 대학생에서 커리어우먼까지 20~30대를 겨냥한 그녀의 패션이미지는 '패션을 아는 여성이 곧 진행형'이라는 여성적 감수성으로 '깨끗함과 모던, 실용성'의 3요소를 통해 스타일리쉬하고 클래식한 룩을 표방하고 있다.



김은미 편집위원, Flora 씨, 한기순 씨, 조규철 편집인(왼쪽부터)

Q Kisoon Harto가 표방하고 있는 의상 컨셉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Casual Elegance라고 말하고 싶다. 실용적인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평상시 입을 수 있으면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몇 년을 입어도 처지지 않고, 심플하면서도 개성이 있는 옷이 제가 추구하는 컨셉이다. 개인적으로 정장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정장을 하더라도 위 아래를 따로 입는 것을 좋아한다.

Q 한샵에 Kisoon과 Flora 두 브랜드가 같이 있는데?

플로라가 20-30대 겨냥이라면 기순은 30-60대 대상이다. 제샵과 같이 있으면서 딸의 제품이 자연스럽게 그 퀄리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승효과를 줄 수 있다.

Q 악세서리 샵도 경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석을 좋아했고 의상만 너무 오래하다 보면 전체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어 보석샵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 보석전시장도 많이 둘러봤다. 하지만 보석샵을 하다 보면 매장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 악세서리샵으로 생각을 바꿨다. 뉴욕에서 의상디자이너를 전공한 큰 딸이 악세서리에도 관심이 많아 그 부분도 수용된 것이다.

Q 지칠줄 모르는 힘이 느껴지는데 좌우명이 있다면?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하

지만 건강은 꼭 철칙으로 지키며 사는 삶이다.(볼륨댄스 수준은 프로급이라고 한다)

Q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못사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또한 두 딸이 모두 성장해서 자신의 길을 당당히 가고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

Q 한인사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인사회는 질적, 양적으로 나름대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이라면 바로 언어문제가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이곳으로 오게 된다면 일본처럼 가족까지 모두 인니어를 가르쳐서 인도네시아에 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 Flora & Kisoon

Shop: Pacific place, 2-35 SCBD Kuningan

• Kisoon Harto

Pondok Indah Mall, Citraland Mall,

• Tocsa(악세서리)

Shop: Pacific Place, 1-76

과실은 **주스**로, 잎은 **약차**로...

‘구아바’라는 이름으로 친근한, 부아 잠부 비지

여름철이면 한국에는 새로운 열대 음료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소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잘 아는 파인애플, 망가, 두리안 등이 음료로 만들어져 판매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교민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듯한 과일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것도 목격 하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구아바 주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과일이 그런 경우 입니다.

구아바 주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있는 과일인 ‘부아 잠부 비지’가 그 재료 입니다. 우리 교민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과일인 ‘부아 잠부 비지’가 한국에서는 구아바 주스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인 과일이 되어 있는 것 입니다. 녹색의 껍질과 홍색의 속살이 잘 조화된 과일, 부아 잠부 비지... 그 신비로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아 잠부 비지의 학명은 *Psidium guajava*입니다. 식물학적으로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Magnoliophyta), 쌍떡잎식물강(Magnoliopsida), 도금양목(Myrtales), 도금양과(Myrtaceae)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도금양과의 식물들은 3,000여 종이 있는데, 꽃의 각 부위들이 씨방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아 잠부 아이르가 이 과에 속해 있으며, 방부제나 방충제로 많이 쓰는 유칼립투스,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며 반위, 소화불량, 급만성위염, 구토, 하리에 많이 쓰이고 있는 정향, 오랫동안 여성들을 위한 치료제와 천연화장품으로 쓰였던 은매화 등이 바로 이 도금양과에 속하는 식물군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대표적인 6종의 부아 잠부 비지를 만날 수 있는데, 잠부 비지 마니스(manis), 잠부 비지 수수(susu), 잠부 비지 들리마(delima), 잠부 비지



삐뻬(pipit),

잠부 비지 뿌라와

스(perawas), 잠부 비지 수꾼(sukun)이 그것입니다.

부아 잠부 비지는 중앙 아메리카를 그 원산지라고 있습니다.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여러 식민지 나라로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인도, 중국, 하와이 등지로 유입되어 지금은 열대 및 아열대 기후를 가진 나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부아 잠부 비지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보통 영어권 국가에서는 구아바(guava)라고 많이 불리며, 프랑스에서는 goyavier, 스페인에서는 guayabo, 캄에서는 abas, 말레이시아에서는 jambu batu, 그리고 멕시코나 중앙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pichi 또는 posh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아 잠부 비지는 해발 1,200m에서 잘 자라며, 나무의 키는 12m정도 입니다. 과일은 작은 것은 2.5cm에서 큰 것은 10cm인 것도 있습니다. 나뭇잎은 광택이 나며 가죽같이 두껍고 단단해 보이며, 향기가 나서 예부터 아로마테라피에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부아 잠부 비지의 껍질은 초록빛을 띠고 있으며, 과육은 연한 분홍색 또는 붉은색입니다. 과육의 가운데에는 과일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씨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육은 즙이 많으며 달콤하며, 아주 약간은 매운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아 잠부 비지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기미(氣味)가 한(寒) 무독(無毒)하고 감고신(甘苦辛)하며 습(澁)합니다. 귀경으로는 수태음폐경(手太陰肺經),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 수소음심경(手少陰心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으로 들어가 설기(泄氣)시키며, 행수(行水)하는 효능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강한 한성(寒性)을 가지고 상초(上焦)로 들어가 설기(泄氣) 시키니, 해열(解熱)하고 청열(淸熱)하는 기능을 볼 수 있으며, 고미로 인하여 수소음심경(수소음심경)의 열을 풀어주니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의 대표적인 역할인 진액 대사를 통해 인체의 정미로운 물질을 상초(上焦)로 끌어 올리는데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삽미(苦澁味)로 인하여 살충(殺蟲)하는 효능이 있어서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의 수습운행(水濕運行)과 이기(理氣)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부아 잠부 비지를 종합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여 피로회복을 위해서는 물론 어린이에서부터 노인 분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즐겨먹는 과일입니다. 또한 섬유소도 풍부하여 당뇨병에 유효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아 잠부 비지에는 비타민C가 최고 87mg이 들어 있으며, 비타민B가 최고 2mg, 비타민A는 최고 400IU가 들어 있으며 비타민G도 35 IU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A와 비타민B는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의 3배 정도, 비타민C는 사과의 무려 60배가 된다고 하며 오렌지에 함유되어 있는 것의 5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칼슘 17mg, 인 30mg, 철분 0.7mg, 단백질 0.8mg이 들어 있어서 종합비타민을 뛰어넘어 종합영양제로도 손색이 없을 듯 합니다.

부아 잠부 비지에는 삽미(澁味)로 알려진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함유 되어 있어서 장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정장작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장작용은 식물섬유의 미끈 미끈한 성분이 장을 통과하면서 장에 남아있던 찌꺼기나 콜레스테롤 등의 인체에 필요 없는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대장의 기능이 원활해지니 대장의 이상 병변으로 발생하는 설사나 변비를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타닌은 세포 내에 있는 지방 성분의 산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노화의 원인이 되는 과산

화지질의 생성을 막아주니 노화 방지에 효과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립암 연구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타닌의 분해산물인 에락산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 억제효과가 있어서 암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아 잠부 비지에는 파파야의 6배, 배의 9배나 되는 40%의 풍부한 섬유질이 있어서 인체내의 유해 물질을 흡수하여 배설시키는 데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반 치료를 위해서는 물론 당뇨병, 고혈압, 대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유용한 과일입니다. 부아 잠부 비지의 말린 잎을 다려서 차로 마시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의 민간요법에 서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당뇨병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혈당을 강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체장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 준다고 하니 당뇨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은 차입니다. 부아 잠부 비지는 일반적으로 주스를 가장 많이 해서 먹습니다. 잘 익은 것은 그냥 먹는 것도 달고 맛이 좋습니다.

젤리나 잼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부아 잠부 비지를 술로 담구어 과일주를 먹는 것도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술한의원 원장 강효정
(kang.4333@gmail.com/021-7278-7410)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장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2



김남규 편집위원
(코린도 그룹 이사)

1회 특집 편에 주위의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2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7. 직장/발표/회의 영어

- 1) 발표자를 저와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join me in welcoming the speaker

- 2)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y presentation today will cover the following contents

- 3)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et's move to (or into) next slide

- 4) 이 것이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This comes to the last slide that I want to make a presentation today = This is the last slide that I would like to make a presentation today

- 5) 발표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I apologize for taking too much time

(주) 그는 컴퓨터 산업에서 중요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다 He is one of the major players in the computer industry (주) player 어 느 신규 또는 경쟁적인 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사람이나 회사를 뜻함 (예) Several players in the newsprint industry 신문용지 산업에서 몇몇 회사(공장)

8. 출장/여행

- 1) 자면 일어가도 몰라(깊이 잠 들어).

I am heavy sleeper

- 2) 차에 올라 타.

Get in (the car)=Hop in!

(주) 여기에서 내릴게 I will get out here, 여기에 내려 줘 Drop me here please!

- 3) 택시를 잡아/ 리무진 타고 가자/미친 거니 아니면 멍청한 거니? /돈이 다 떨어져가고 있어.

Grab a taxi=Catch a taxi/Let's take limo/Are you crazy or foolish? /We are running out of money

(주) limo=limousine 보통 승용차 보다 길고 고급스러운 차, run out of 을 다 써버리다; (물품 따위가) 바닥이 나다

- 4) 빈 방이 없어.

There are no more rooms available

(주) rooms 대신 seats (좌석)을 써도 됨

- 5) 밤 낮으로 내게 전화 해.

Call me day and night

(주) 언제든지 내게 전화 해 Call me at any time

9. 무역/경제/금융/재정

- 1) 비용은 분기 대비하여 사천만불 증가 하였고 지난해에 비해 이익 이천만 불 늘었다.

Cost was up US\$40 million quarter-over-quarter and were US\$220 million higher than a year earlier

(주) quarter-over-quarter 분기 대비하여, 1st quarter VS 2nd quarter (1/4 분기 대비 2/4 분기)

- 2) 실행[실현]할 수 있는 가격

Workable price

(주)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 best price 최고 가격, bottom price 최저가격, compressed price 깎아서 압축된 가격, affordable price 줄 수 있는, 알맞은 가격, extremely high price 엄청 비싼 가격, market-value 시장 가치, black market-value 암시장 가치, street-value 밀거래 가치, book-value 장부가치

- 3) 가격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

I am limited to how low I can go

- 4)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행. Stagnation(불경기) plus Inflation(물가고)의 합성어

- 5) 금 가격은 매일 바뀌고 있다.

Gold price keeps on changing everyday

10. 정치/사회

1) 과거 정부는 외부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거꾸로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을 했다/이것은 바뀌어져서 외부의 즉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실행되고 내부적으로 국가에 의해 역점을 두고 다루어져야 한다.

Past government worked inside-out. This must change to become outside-in, where society's needs are implemented and addressed by the state

(㉞) inside out 뒤집어; (비유) 크게 혼란하여, outside in 뒤집어서 (입다), address 역점을 두어 다루다

2)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과 반정부 항의자들 간에 무력 충돌에 대한 근심을 일축하였다.

The president played down fears of violence between his supporters and anti-government protesters

(㉞) play down (타동사) 가볍게 다루다, 기세를 누그러뜨리다

3) 정당 정책은 이미 결정된 것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직역: 멀리 가지는 않을 것이다).

The party's policy will not go far from what have decided

(㉞) far from 에서 멀리

4)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명백히 구분해야만 한다.

We have to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legal and political aspects

(㉞) mak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명백히 구분하다, make no distinction between 구별하지 않다, 을 평등하게 다루다.

5) 개인 견해로는 북한의 가장 큰 목표는 유엔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일이다.

As far as I could see (= What I am seeing is that=The way I look at it is that), North Korea's greatest goal i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㉞) 현실화 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It is still a long way from reality
(㉞) long way to go 갈 길이 멀다

11. 패션/쇼핑

1) 힘이 빠질 때까지 쇼핑 하자.

Let's shop until drop

(㉞) drop 지쳐서 쓰러지다, 녹초가 되다 (예) My supervisor is a person to work till drop 내 상관은 지칠 때까지 일하는 사람 이야

2) 기성복(의)

Ready-to-wear, Ready-for-wear

(㉞) 맞춤옷 Tailor-made

3) 적절한 복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 넌 눈이 먼 거 아니니? / 이 보다 더 잘 입을 수는 없어(난 훌륭히 잘 차려 입었어)

Probably not dressed? / Are you blind or what? / I can't be more decently dressed than this

(㉞) decent (복장, 집 등이) 버젓한, 알맞은, 남부럽지 않은. (태도, 사상, 언어 등이) 예의 바른, 예법에 의거한, 품위 있는, 점잖은. (수입 등이) 어지간한, 남만한, 일정 수준의, (가족 따위) 문벌이 좋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상당한. decent 형용사는 여러 의미로 자주 쓰이는 아주 중요한 형용사 임

4) 양복이 멋있어.

Nice suit!

(㉞) 넥타이가 멋있어 Nice tie! 옷이 멋져 Nice dress!

5) 고객이 겪은 물질적, 비물질적 손실로 인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The client deserves the compensation due to the material and immaterial losses he suffered

(㉞) deserve 할 자격이 있다 (예) 체력적으로 러시아 선수들이 우리 보다 한 수 위였다/러시아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 Physically, they were a step ahead of us/Russia deserved the victory. EURO 2008 축구 8강전에서 히딩크 감독이 이끈 러시아의 승리에 대해 패한 네덜란드의 감독과 선수가 한 말

12. 의학/건강

1) 종아리에 쥐가 났어.

I have a cramp in the calf

(주) cramp: 수영 등 운동 중에 생기는 쥐, 경련. 보통 복수로 씀
(예) I have cramps all over 온 몸에 쥐가 났어

2) 뱃멀미가 있어.

I am getting seasick

(㉞) seasick 뱃멀미가 난, 뱃멀미의, carsick 차멀미의 get seasick/carsick 배(차) 멀미하다

3) 예방접종 Vaccination, 어지러움 증 Dizziness 감기 주사 Flu shot

(주) shot 의 뜻은 주사 한 대 (dose, injection 과 같은 의미), 후 유증 Trauma

4) 홍역/볼거리/풍진:

Measles/Mumps/Rubella (MMR)

5) 건강해 보여.

You are looking in the pink

(주) 좋아 보여 You are looking great (주)안 좋아 보여 너/흡연은 건강에 나빠 You don't look look/Smoking is bad for your health

13. 영화에 자주 나오는 법/경찰액션 영어

1) 감방 친구

Cellmate

(주) 음악밴드 친구 bandmate, 반 친구 Classmate, 방 친구 Roommate, 직장동료 Workmate=workfellow, 동료 Colleague

2)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올 바른 선택을 해.

There is an easy way and there is a hard way/Make the right choice

(주)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는 길이 있어 There is an easier way to get what you want

3) 죽었어 너 오늘(가만 안 두겠어)

You are so dead today=You are dead man today

4) 조무래기들은 도망가게 하고 거물을 잡자.

Let the little fish run away and we catch the big fish

5)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 난.

I am over your head =I am one cut above(한 수 위야 내가)

(주) a cut above [below] (회화체) 「보다 한 수 위[아래]=a step ahead(한 수 위)

(주) 판례, 선례, 전례 Precedent, 법률적 책임 「형벌로부터의 면책, 사면 Indemnity(=Exemption=Immunity) (주) Indemnification 보상, 보장, 보증, 면책. Mitigation 형벌 등의 경감, 완화

다음 3회에는 14) 이메일, 영문 편지 15)연예계/Media 영어 16)축구영어 17)기타 운동 영어 18)미국영어/영국영어 19)틀린 발음 20)숙어/유용한 부사 등이 이어질 예정 입니다. 특집 1회를 못 보신 분들은 한인뉴스에 연락바랍니다.

한인뉴스
정기구독자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을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35만 루피아/년

●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김문환

국어사전을 열어 보면 조강지처(糟糠之妻)라는 단어의 뜻이 ‘가난할 때 고생을 함께 하며 살아온 본처(本妻)’라고 설명되어 있다. 새삼스럽게 이 단어를 들먹거린 이유는, 최근 시청한 한국 TV연속극 중에 남편의 외도로 가정의 분란을 겪었지만 강인한 생활력으로 당당하게 세파를 극복하는 현대판 모녀 조강지처의 모습이 무척 고무적으로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조강지처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을까?

그리스 어원으로 ‘gamy’라는 어근은 ‘결혼’, 또는 ‘생식’이라는 뜻이며 각각의 접두어를 합성하여 Bigamy(이중 결혼), Digamy(재혼), Homogamy(동류교배), Monogamy(일부일처), Misogamy(결혼혐오) 등의 단어로 파생된다. 회교율법상 그 관습이 허용되는 ‘일부다처’라는 단어도 ‘많다’라는 뜻의 ‘poly’를 합성하여 ‘Polygamy’가 만들어졌으며, 인도네시아어도 외래어인 ‘Poligami(뿔리가

미)’로 표기되고 있다.

실제 이슬람 율법(Surat an Nisa ayat 3 4:3)에는, 이슬람교도 남성은 원칙적으로 한 명 이상 네 명까지의 여성을 부인으로 둘 수 있으며, 남편은 혼인한 모든 부인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그러나 이 일부다처제에 관한 율법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법적, 또는 관습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튀니지아(Tunisia) 같은 회교국가는 일부다처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인구 면에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국가공무원들의 일부다처제는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이 관습이 철저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2008년 3월 개봉되어 3백 6십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아얏 아얏 찌따(Ayat-ayat Cinta)>라는 영화에서도 이 폴리가미(Polygamy)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부부간의 인내, 화합, 진정성이 폴리가미 제도가 안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요체임을 계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대사에서 이 일부다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격론을 불러 온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는 무려 아홉 명의 여성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혼인하여 사회문제화되었으나 ‘건국의 아버지’라는 위세에 눌려 수면 밑에서만 소용돌이치다 소멸되어 버렸다. 그는 20세 나이인 1921년 고향인 동부자바 수라바야에서 부친의 친구이자 이슬람 대중운동의 선각자 쥘로아미노또(Tjokroaminoto)의 딸인 16세의 시띠 우파리(Siti Oetari)와 혼인한 상태에서 반동공과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장인의 소개를 받아 하숙하고 있던 집주인의 부인 잉깃 가르나시(Inggit Garnasih)에게 첫 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면서 첫 결혼은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기혼자였던 잉깃은 수카르노 보다 무려 12년이나 연상이었고 수카르노와의 사이에 자녀를 갖지 못하자 라뜨나(Ratna), 까르띠까(Kartika)등 2명의 양녀를 두

게 되었다. 네덜란드 식민지하에서 저항운동을 전개하던 수카르노는 1938년 당국에 체포되어 일본군이 진주하는 1942년 3월까지 수마트라 벵쿨루(Bengkulu)에 유배되었는데 이 당시 그를 시중들던 벵쿨루 출신의 처녀 화프마와띠를 1943년 6월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20여년간 유지되어 온 잉깃 가르나시와의 결혼생활도 중지부를 찍게 된다. 수카르노와 결혼식을 올린 지 한달 밖에 안된 1943년 7월, 점령지 순방 차 자바를 방문한 일본제국의 수상 도조 히데끼(東條英機)의 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기모노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짓던 화프마와띠의 모습이 그녀의 전기집에 수록되어 있다. 화프마와띠는 군뚜르(Guntur), 메가와띠(Megawati), 라흐마와띠(Rachmawati), 수끄마와띠(Sukmawati), 구루(Guruh) 순으로 2남3녀를 두며 영부인의 지위를 누리던 중, 중부자바 살라띠가(Salatiga) 출신의 유부녀인 하르띠니(Hartini)가 1953년에 수카르노의 제2부인이 되면서 그녀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959년 9월 수카르노가 네모또 나오키(根本七保子)라는 19세의 일본 여성과 비밀리에 발리(Bali)섬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하르띠니는 자살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도쿄 아까사까(赤坂)의 외국인전용 나이트클럽 ‘코파카바나’의 호스티스 출신인 나오키는 결국 1962년 3월 3일 수카르노의 제3부인이 되어 라뜨나 사리 데위 수카르노(Ratna Sari Dewi Sukarno)라는 인도네시아 이름을 부여 받고 마침 대일청구권협상이 타결되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대형 프로젝트를 주무르며 일본 일변도의 경제예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데위 여사 이후에도 하리아띠(Haryati), 유리께(Yurike Sanger), 가르띠니(Kartini Manopo), 헬디(Heldy Djafar)로 이어지는 비밀혼인 행진은 1970년 수카르노가 가뭇 수브로또 육군병원에서 사망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2001년 메가와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면서 공석이 된 부통령직에 선출된 개발통일당(PPP) 당수인 함자 하스(Hamzah Haz)는 재임 중 3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으며, PBR (Partai Bintang Reformasi)당 출신의 자

에날 마립(Zaenal Ma'arif)이 2006년 12월 제2부인을 맞이하자 소속당은 차기 총선에서 여성표를 잃게 된다는 이유로 2007년 1월 16일 자로 그를 당에서 축출하면서 의원직은 물론 그가 맡고 있던 국회부의장직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점인 2006년 근래에 가장 인기 있는 이슬람 대중 설교가인 아아 김(Aa Gym; 본명, Abdullah Gymnastiar)이 전직 모델이며 판인 방크(Panin Bank) 은행 반등지점 간부인 37세의 리니(Rini)라는 여성을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 들이자 그를 신봉하던 대다수 신도들이 그를 등지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폴리가미 문



2007년 1월 17일 아아 김(Aa Gym)이 메트로 TV 토크쇼 'Kick Andy'에 출연하여 자신의 폴리가미에 대한 고뇌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 상단 왼쪽은 조강지처와 7명의 자녀들이고 우측 하단은 2006년 맞이한 제2부인이다.

제와 관련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일부다처제는 분명히 신이 허락하신 관습이긴 하나 일반화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비상탈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다.”며 자신의 폴리가미에 대한 종교적

인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그간 헬리콥터와 전세기를 동원하여 시간을 쪼갤 정도로 자신을 돌볼 틈 없이 바쁜 행사, 설교 일정으로 인해 부모는 물론 가족들을 전혀 보살피지 못한 채



라하유 에펜디의 현재의 모습. 그녀는 자신의 저택을 처분하여 선거운동비용에 충당할 정도로 차남인 데데 유습을 서부자바 부지사에 당선시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자아를 상실하여 가는데 대한 비상 탈출구를 신께서 폴리가미라는 대안을 내려 주신 것이라며 강변하였다.

일부다처 문제와 관련하여 다소 해학적인 사건 하나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5년 9.30 쿠데타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령과 가루다 항공사 승무원을 지내다 영화배우로 전향한 라하유 에펜디(Rahayu Effendi)와의 스캔들은 서슬 퍼런 당시의 압제정치 하에서도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된 적이 있었다. 수하르토가 집권한 지 10여 년이 지난 1970년대 후반, 남편이 여배우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영부인은 장남인 시깃(Sigit)을 시켜 인근 소방서에 연락하여 그 집에 물을 뿌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고를 받고 상류층 주택가인 심뿌룩(Simprug)의 여배우 집에 도착한 소방서원들은 외관상 불길을 발견하지 못해 어리둥절하였으나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한 소방차로 인해 조용한 부촌이 북새통을 이루는 사이 실제 대통령이 그 집안에 연인과 함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동네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아무리 지엄한 권력자라도 조강지처의 위력과 질투심 앞에서는 무력해지며 큰 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해프닝이었다. 이 사건 직후 대통령의 비밀 아

폴리가미(Polygamy)와 조강지처(糟糠之妻)

지트가 새어 나갔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은 면직되었고 얼마 후 대통령은 영부인에게 코가 꿰어 국영텔레비전방송(TVRI)에 함께 출연하여 전국 시청자들 앞에서 “항간에 떠도는 본인과 모 여배우와의 스캔들은 낭설이며 옆에 앉아 있는 띠엔(Tien) 부인만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다.”라는 체벌성 해명을 강요당하는 장면이 아직까지도 필자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부인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무원들에게는 일부다처제가 금지된다.”는 법령을 제정토록 강요하여 일부다처를 감행하는 국가공무원들에게는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1963년 수마뜨라 빠당(Padang) 출신의 루스맘 에펜디(Rustam Effendi)와 혼인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연인으로 구설수에 오른 라하유 에펜디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며 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였고 그녀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인 데데 유습(Dede Yusuf;



2008년 4월 10일 실시된 서부자바 주지사, 부지사 선거에서 러닝 메이트로 각각 당선된 아흐맛 헤르야완(Achmad Heryawan)과 데데 유습(Dede Yusuf)이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오른쪽이 아흐맛 주지사 당선자, 왼쪽이 데데 유습 부지사 당선자.

본명, Yusuf Macan Effendi)은 2008년 4월 10일 실시된 서부자바 주지사 선거에서 복지정의당(PKS)의 아흐맛 헤르야완(Ahmad Heryawan)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부지사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966년생으로 국가수권당(PAN) 소속의 현직 국회의원인 데테 유습이 수하르토의 친자니 아니 하는 가십(Gossip)은 지금도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한동안 평온한 정경을 보



톱가수인 마양사리가 2000년 7월7일 대통령의 차남과 비밀결혼하자 조강지처인 할리마도 오랜 기간 인내 끝에 폴리가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수하르토가 사망하기 10일 전인 2008년 1월 16일자로 종교재판소의 이혼판결을 받아 냈다.

여주던 대통령의 가문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으니, 1986년 9월 8일 심야시간, 자카르타 도심지의 한 주택가 노변에 혼다 아코드 승용차 안에 다섯 발의 총상을 입고 임신상태로 숨져있는 30대 초반의 여인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디체 물요노(Ditje Muljono)로 신원이 밝혀진 그녀는 당시 유명 사진모델로 대통령의 사위뿐만 아니라 몇몇 정부요인들과도 치정관계로 얽혀있는 사이였다. 사건의 배경이나 등장

인물의 신분, 사후처리 과정 등이 1970년 3월 17일 밤 통금 시간 직전 춘설(春雪)이 내리는 서울 강변로의 코로나 승용차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정인숙 사건’과 너무도 흡사하였다. 이 디체 사건을 신호탄으로 장남의 도박벽이 불러 일으킨 라스베가스 도박장의 수천만 불 탕진사건과 차남, 3남, 차녀, 3녀, 장손으로 이어지는 이혼행진으로 대통령이 주변은 바람 잘 날이 없었고 1996년 4월 28일 급기야 영부인의 갑작스런 죽음까지 불러 왔다. 설왕설래가 있지만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관련된 ‘국민차(Mobil Nasional)’ 주도권 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이 엄청난 사건은 영부인이 지지하는 차남과 대통령이 편애하는 3남 간의 언쟁 끝에 우발적으로 발사된 총탄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있으며 결국 영부인을 먼저 떠나 보내고 중심을 잃기 시작한 수하르토 정권은 2년 후 붕괴되고 만다. 이 사건의 충격 탓이었는지는 몰라도 과묵하고 내성적이던 차남은 최고의 출연료를 받는 미녀 가수인 마양사리(Mayangsari)를 비밀리에 제2부인으로 맞아 들이자 조강지처인 할리마(Halimah) 부인과 자녀들은 큰 아들이 직접 운전하는 차를 몰고 마양사리의 자택에 돌진하여 대문을 들어 받는 소동까지 일으켰는데 이때 집안에서 황급히 뛰쳐나온 차남은 그 자신의 큰 아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차남이 마양사리와 동거하는 지역이 바로 30여 년 전 부친의 연인인 라하유 에펜디가 거주하던 지역과 같은 동네인 심뿌룩(Simprug Golf)일뿐만 아니라 그때는 영부인이 장남을 시켜 소방차를 동원하였지만 지금은 그 며느리가 큰 아들이 운전하는 자가용차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혹시 풍수지리적(風水地理的) 요인과 유전자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관심이 가는 부문이며 우리 말에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는 경구가 있듯이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신들의 행실과 처신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First Flight Airport-to-Airport Cargo Delivery for Domestic Destinations

SPEED CARGO

Garuda Indonesia Speed Cargo로
이제 화물을 더 빠르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 화물 수령 시간 - 항공기 이륙 시간 90분 이전
- 예약 불 필요
- 이륙시간 보증
- 부드럽고 신속한 핸들링 :
- 특별 스텝진들이 서비스하는 특별 창구 준비됨
- 환불 보증
- 정확한 내용물 표기
- 믿을 수 있음 : 이송 화물의 쉬운 확인

운송 화물

- 소규격 소포 / 서류 / 선물 / 인쇄물
- 운송 제한 화물 :
액체류, 화학제품, 위험성 화물, 신문, 주식서류, 차량등록증,
증명서, 여권, 그림, 고가 제품, 동물 등.

운송 규정

- 제한 중량 :
최대 30kg 중량 단위 내용물 포함 최대100kg 까지
- 최대 크기 :
가로 43cm, 세로 23cm, 높이 33cm

이용 요금

- 보통 운송요금의 150%
- 최소 요금 : 10kg 요금
(공항 카르고 이용, 재포장, 안전, 항공유, 서류작성 비용, 세금 미포함)

* 유효한 사규에 따름



콜 센터 (일반전화요금)
0 804 1 807 807
또는 (021) 2351-9999
www.garuda-indonesia.com

CARGO
Garuda Indonesia
WE HANDLE WITH CARE



이번 호는 지난 한인 뉴스를 통하여 이미 유사 사례를 설명한 바 있으나 위반 하였을 경우 교민 입장에서는 매우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 할 지라도 현행 규정 위반 사유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들로, 특히 도착비자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소개하고 이와 관련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체류사실 신고 위반으로 문제가 병합하여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함.

글 : 주 인니 한국대사관 사증담당 영사 박 상훈

● 도착비자 관련

- 도착비자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해드린 바 있으나 아직도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도착비자(VOA: Visa On Arrival)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관광, 사회, 문화활동, 상용(Business), 물품검수 및 계약, 공무, 전시회참가, 단기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체류기간은 7일 이내, 30일 이내 2종류로 모두 연장이 불가능 함. (NO: M.04.IZ.01.10-2003/F-434.IZ.O1.10-2006 법무부장관 부령)
- 도착비자 적용에 관한 2006년도 법무부장관 지침에 의하면 도착비자를 소지하여도 방문비자(사회, 문화비자/비자 인덱스: 211)의 활동에 준하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도착비자는 관광이나 방문목적에 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 도착비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는 물론 관광객이 많은 대만, 중국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며(현재 63개국) 도착비자 대상국가가 아닌 국민에 대해서는 도착비자에 준하는 비자(비자 인덱스: 213)를 발급해 주나 이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공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부여 받는 도착비자에는 인덱스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도 간혹 취업이 아닌 단순 상용목적일 경우(수출입 상담, 물품검수, 계약 등) 도착비자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며 위에 설명한 배경이 그 근거로 추정 됨. 그러나 위에 적시한 상용 활동의 범위가 대상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처벌 사례도 공표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곳을 방문

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도착비자를 이용하여 자주 출입국 하고 있는 교민들이 애로를 겪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문제는 대부분 단기 방문자들이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아닌 초청자, 친척집에 체류하게 되므로 상기 도착비자 활동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체류지 신고의무 위반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로 발전하게 됨.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자나 체류 외국인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동의 무사함을 24시간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루피아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법 제60조)

- 이와 관련 도착비자의 개념과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실제 발생 사례를 들어 다시 소개하고자 하니 도착비자로 입국 하려는 교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인니 관광청은 2008년 인도네시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위해 도착비자를 적용하고 있는 한국 등 11개 주요국가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으나 주재국 이민청은 당분간 동 도착비자제도를 계속 적용해 나갈 것으로 보임

사례 1)

도착비자 입국 후 체류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조사를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자 다른 규정 위반을 들어 처벌한 사례 (사례 가,나,다)

o 사례 가)

- ① 이미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던 교민 김OO가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자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 주식변동 절차를 진행

하던 중, 이민청으로부터 별도의 체류허가를 받지 않음을 인지한 현지 경찰이 내부 현지인의 협조를 받아 김OO의 구체적인 위반 자료를 확보하였음.

- ② 이민법을 위한 한 사실을 확인한(체류자격의 활동 혐의) 현지 경찰은 동 사실을 이민청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입건 조사하고자 김OO에게 출두해 주도록 수차례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 ③ 마침 김OO가 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수수 활동을 진행 중이던 또 다른 교민 최OO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동인이 도착비자로 입국하여 약 15일 이상 회사를 드나들었다는 사실과 체류지가 김OO의 가정집임을 확인하고는 일단 최OO를 체류자격의 활동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연행하였음.
- ④ 연행된 교민 최OO는 이미 도착비자를 소지하여 수차례 출입해온 사실이 밝혀져 과거에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추가조사를 받았으며 상기 교민 김OO과의 연계성을 집중 조사 함(이 과정에서 조사 규정 및 절차는 철저히 준수 함)
- ⑤ 결국 영사가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하자 “교민 최OO가 특별히 체류자격 외 활동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기 체류지 미신고 사실 위반을 거론” 하며 조사 방향을 바꿔 체류지 미신고 위반 벌금을 부과한 뒤 교민 김OO를 압박하여 급기야 입건 조사하였음.

o 사례 나

- ① 교민 남OO는 인도네시아 건설 근로자를 한국 본사가 중동에 시공중인 공사 현장에 파견하기 위해 현지 대리점이 미리 선발한 근로자 면접 차 도착비자로 입국, 대리점을 방문한 뒤 근로자에 대해 인터뷰 2-3회를 실시하였음.
- ② 이미 한국 본사에서는 인니에 주재 근무자 1명을 파견하여 장기 주재 시키려고 체류관련 수속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교민 남OO는 시장 조사를 겸하여 일시 방문목적의 도착비자로 입국하였음에도 대리점 측이 “관할 경찰이 비자관련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인터뷰를 원한다며 대기하라”고 하자 현장에 갔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연행 됨.
- ③ 경찰은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식 주재근무 예정자는 따로 수속을 진행 중에 있고 자신은 단지 일시 방문하였다”고 항변하자, 이번에는 미리 입국하여 주재근무자 비자 수속을 진행 중이던 직원에 대해 “주재 근무 예정자가 아직 수속이 완료 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추가 조사를 계속 하였음.
- ④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도 교민을 강제 연행이 아닌 업무협조(본인동의)식으로 조사를 하여 마치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처럼 하였으며 동 건은 추후 대리점이 위반 사실 여부를 조사토록 경찰에 신고 하고 후속 처리과정에도 깊게 간여한 것으로 판명됨.

o 사례 다

- ① 교민 윤OO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교민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인터뷰를 받고자 우선 도착비자로 입국하였고 업체 대표는 채용은 결정하였으나 정식 취업사증을 진행하는 동안 기다리도록 한 뒤 취업 허가가 완료되면 싱가포르 일시 출국 시킬 작정이었음.
- ② 국내에서 인니어를 전공한 윤OO는 채용 예정분야가 영업활동으로 본인 스스로도 취업허가를 받을 때까지 현지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겠다고 하며 체류기간 만료일 2일 전까지 출근부에 사인도 하고 일부 통역도 담당하였음.
- ③ 그러나 현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두를 요청하자 업체 대표와 본인 간에 사전 약속을 하며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현재 수속 정식 취업사증을 진행 중임을 내세워 위반 사실을 부인하였음(실제로 위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④ 현장에서 조사가 불가능 해지자 일단 대표자를 소환 확인 하겠다며 귀가 시키고는 통역이 없다(?) 담당자가 외근중이다(?) 사유를 들어 조사를 지연 시키는 바람에 급기야 윤OO는 체류기간이 만료 될 지경에 이르렀고 다급해진 동 업체 대표가 출석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

상기 사례들은 도착비자 자체로는 체류자격의 활동 위반과는 무관함에도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별다른 위반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다른 사유 즉, 체류지 신고 의무 위반이나 주변 인물의 위반사실을 들어 조사를 했던 사례들로서 조사 주체가(이민청, 경찰 이든) 다른 위반 사실을 조사 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 세우고 대상자의 협조를 받은 것처럼 확인 하고자한다고 우길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도착비자에 관하여는 주무부서의 구체적인 유권해석(상담 활동, 물품 검수 등)이 있는 만큼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사례 2)

도착비자 입국 후 대학교 어학연수 입학을 위한 추천서 발급요청

▶ 도착비자는 사회, 문화 활동에도 종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간혹 어학연수나 인니 대학 입학 을 위해 우선 도착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 김OO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니 취업 전 어학연수를 하고자 친척의 소개로 도착비자로 입국.

- ① 어학연수나 대학 입학 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유학 비자를 받아 입국 하거나 사회문화 비자를 받아 우선 입국한 후 관련 연수 기관의 입학 허가서-문교부 대학 고등교육국 허가-공관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유학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기 김OO는 도착비자로 입국 후 어학연수를 먼저 하고 유학비자 변경을 위해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관 추천서를 요청하였음.
- ② 문제는 해당 대학이나 어학 연수기관이 도착비자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입학을 허가 하였다면 당연히 기타 관련 기관에

서도 이를 인정해 주어져 함이 타당하나 이민청의 입장은 도착비자 소지자가 어학연수를 주기적으로 장기(1달?) 했다면 도착비자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실제 처벌 되지는 않았음).

상기 사례는 대학교에서 발급한 입학 허가서에는 수신처가 교육부, 해당 이민청 사무소, 해당 대사관을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학이 도착비자를 소지한 자에게 1개월간 이미 재학한 사실을 명기한 추천서를 발급해 주면서 공관의 추천을 받아 제출도록 하여 자격요건에 관한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민청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임. 즉, 도착비자로 우선 입학하여 정식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 하였더라도 향후 추천서 발급 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가능하면 사회, 문화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토록 함이 좋음.

● 체류지 신고사항 관련

-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 할 경우 체류허가와 별 도로 반드시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주거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지난 호에 이미 설명하였음- 이민법 제60조 및 법제61조).
 - 이민법 제60조는 단기체류자, 즉 도착비자로 입국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도착 후 24시간 이내 본인이 아닌 주거 소유자나(집 주인)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관할 경찰서나 구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반면, 장기 체류 예정자로 체류허가를 이행한 경우는 그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대리인)이 신고 (SKLD)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장기체류예정자는 주로 전문 대행업체가 수속을 대행하므로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해 주고 있어 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단기로 개인집에 머무르며 일시 방문형식의 상용 활동을 하는 분들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체류허가 위반여부와 맞물려 문제가 제기 될 경우 전혀 얘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호텔이나 숙박업소에 투숙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의무자 이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치 아니 함)

사례 1)

본인 스스로 KITAS(체류 증) 연장 허가는 받았으나 경찰신고 (SKLD)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

- ▶ 1년 이상 인니에 체류해온 유학생 김OO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본인 스스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보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음
- ① 본인은 수속비라도 절약 하려는 마음에 이민청을 3차례나 찾아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결국 추가로 1년 더 체류 증 (KITAS) 연장 허가를 받았음.
- ② 체류기간은 이민청에서 관장하므로 체류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만 문의한 결과 체류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경찰서 신고증 (SKLD) 재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내 던 중 집 주인과 사소한 마찰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단속하였음.

- ③ 경찰서 거주 신고는 한 번 이행하면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고 체류연장 허가 시 마다 별도로 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동 유학생 김OO는 이를 알고 있지 못하였음, 문제는 동 학생이 단속 경관과 법 조항을 제시하라! 처벌 근거를 대라! 는 등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정식 입건을 하겠다며 경찰서 출두를 요구하였고 결국 영사가 선처(?)를 요구하고 나서야 해결이 되었음.

(※ 위법 사실이 없는 경우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고 항의해야겠지만 규정을 위반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음)

사례 2)

상용사증은 받았으나 체류지 신고를 하지 않아 조사를 받던 중 초청장 위조 사실이 밝혀진 사례

- ▶ 교민 나OO는 S 지역에 위치한 현지인 운영 업체와 업무 협의를 위해 상용사증(사회,문화 사증에 포함)을 받아 입국하여 약 10일간 체류해 왔으나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소재한 교민 운영 업체와도 계약 건이 성사 되어 현지(S 지역)를 이탈하게 되었음.
- ① 그 이후 자카르타 근교 교민 집에 거주하며 업체를 방문하던 나OO에 대해 현지 경찰이 체류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업체를 찾아와 나OO의 여권을 임의 제출 받아 조사를 하였음.
- ② 이 과정에서 나OO가 S 지역 소재 업체가 작성해준 초청장으로 상용사증은 받아 왔으나 초청회사와 관련이 없는 자카르타 인근 지역의 업체 즉, 초청 업체 이외 다른 업체를 방문하여 상용활동을 했다면 2가지 사항 위반으로 입건 으름장을 놓으며 초청 회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실시하였음.
- ③ 문제는 나OO가 현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상용차 방문하겠다는 대행업체에 사증수속을 의뢰하였으나 대행업체 (한국 소재 여행사)가 S 지역에 소재하였을 뿐 방문 예정 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제3의 한국인 업체를 도용, 초청장을 위조한 뒤 주한인니대사관에 제출토록 하여 상용사증을 받게 해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게 되었음.

(※ 한국 업체 법인장의 허가를 받지도, 요청도 하지 않고 대행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나OO에게 설명도 하지 않아 결국 나OO가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처벌되었음)

상기 사례들은 단순히 체류지 신고를 이행하지 못했으나 이를 발미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얘기치 못한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우로 단순 법 조항은 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으며 만약 외국인이 종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중국에는 강제퇴거절차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함.

‘제7차 세계한상대회’ 참가등록 안내

‘제7차 세계한상대회’가 2008년 10월28일(화)부터 10월 30일(목)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2002년에 시작된 세계한상대회는 올해가 일곱 번째로서 명실공히 ‘세계 한인 글로벌 경제네트워크’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동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역량 결집과 비즈니스 교류 확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대회에서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및 기업전시회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한 ‘업종별 비즈니스 상담회’ 등 내외동포 경제인간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수 있도록 새롭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외동포 경제인 3,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대회를 통해 韓商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도약하는 장이 될수 있도록 재외동포경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참가등록 안내 -

● 대회개요

행사명 : 제7차 세계한상대회(The 7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기간 : 2008년 10월 28일(화)~30일(목), 3일간

장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규모 : 40개국 약 3,000여명(국내 1,500명, 국외 1,500명)

주최 : 재외동포 경제재단

주관 : 재외동포재단, 제주특별자치도, 매일경제신문 · mbn

슬로건 : “세계속의 한상, 넓어지는 우리 시장”

대회장 : 승은호 동남아한상연합회 회장

공동대회장 : 양재일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회장, 장석원 Korea IT

Network 회장, 천용수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회장, 최종태 재일한

국상공회의소 회장, 최태훈 중남미한상연합회 회장

● 한상대회 프로그램

구분	10.28(화)		10.29(수)			10.30(목)		
09:00~10:00	-	등록 및 체크인	기업 전시 회	일 대 일 비 즈 니 스 미팅	기업 전시 회	멘토링 세션	일 대 일 미팅	기업 전시 회
10:00~11:00						업종별 세미나		
11:00~12:00			비즈니스 상담회		투자설 명회/취 업,인턴 상담회			
12:00~13:00						오찬		
13:00~14:00						-	기 업 전 시 회	
14:00~15:00								
15:00~16:00								
16:00~17:00	개막 식	환영 만 찬						
17:00~18:00			만찬 (문화행사)	폐막식 및 환송 만찬				
18:00~19:00								
19:00~20:00								
20:00~21:00								

*상기프로그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안내

가. 참가등록 방법

온라인 : 대회등록사이트(www.hansang.net)를 통한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

사전등록 시간 : 2008.5.19(월) ~ 7.31(목) 까지

등록비 : 2007년도와 동일

나. 등록시 제공사항

국내 참가자

기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08.7.31까지	'08.10.28(대회당일)
등록비	100,000원	150,000원
등록비 포함내역	① 프로그램 참가 :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② Conference Kit, 한상기업 디렉토리, 각종 기념품 제공 ③ 숙박희망자는 중저가 숙박시설 안내	

국외 참가자

기간	사전등록	현장등록
등록기간	08.7.31까지	'08.10.28(대회당일)
등록비	USD350	USD450
등록비 포함내역	① 숙박제공 : '08.10.28~30(3박, 2인1실) - 1인1실 사용 및 동반가족 1인당 USD350 추가부담 ② 프로그램 참가 :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미나, 문화행사 등 전체 프로그램 참가 ③ 식사제공 : 총8회 - 10.28 만찬, 10.29~30 오 · 만찬 : 행사장 ④ Conference Kit, 한상기업 디렉토리, 각종 기념품 제공 ⑤ 숙소-행사장간 무료 교통편 제공	

※ 송금 수수료 참가자 부담, 신용카드 사용불가

다. 등록비 입금 계좌

구분	국외 참가자
은행명	Hana Bank Seocho-Nam Branch
계좌번호	224-910002-55132
예금주	Overseas Koreans Foundation
Swift code	HNBKRSSE
은행주소	1354-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라. 등록비 환불

환불신청 :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E-mail로 신청

환불시기 및 환불액

2008.9.30 까지 환불 신청시 : 전액 환불

2008.10.1 이후 환불 신청시 : 환불 불가

대회종료 후 수수료를 제외한 등록비를 입금자 계좌로 환불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전화 : 80-2-3463-5306

팩스 : 82-2-3463-3999

담당 : 재외동포재단 한상팀 김정희 과장(hansang@okf.or.kr)

6월 ‘밥퍼’ 사역을 다녀와서

SICS 11학년 김소은

작년에 ‘밥퍼’ 사역 창시자이신 최일도 목사님의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금년부터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원금 목사님의 인도로 동부교회 옆의 작고 허름한 부엌에서 ‘밥퍼’ 사역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방학을 기회로 평소 가 보고 싶었던 ‘밥퍼’ 사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출발하였으나 길을 잘 몰라 공사장에서 일하는 현지인들과 구멍 가게의 현지인들에게 물어 물어서 가까스로 ‘Dapur Korea (한국 부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 했던 허름한 현지 구멍가게 옆의 작은 부엌이었다. 하지만 내부는 아주 청결하고 깔끔했다.

먼저 도착하신 분들께서 이미 음식을 준비하셨고, 일찍 온 내 친구는 번호표 순서 정리 등 작은 일을 도왔다. 늦게 도착한 나는 목사님과 함께 마크로로 장을 보러 갔다. 마크로에 도착하여 우리는 목사님을 따라 우선 닭 코너로 갔다. 목사님은 걸음과 손놀림이 정말 빠르셔서 어느새 우리 보다 훨씬 먼저 닭 코너로 가서 비닐 봉지 여러 개를 뜯으시고 한 봉지 당 크기가 좀 작은 닭 5 마리씩 넣으라고 하셨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나는 얼른 비닐 봉지를 한 손에 끼고 닭의 상태를 코로 확인해 가며 닭을 고르고 닭을 토막 내는 곳에 달긴 후에 부지런히 목사님을 따라 갔다. 그리고 전분 4 봉지와 식용유 2 박스, 삼발 1 박스를 트롤리에 실었다. 토막 낸 닭을 받은 후에 목사님과 함께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였는데 현금이 모자라셨는지 목사님께서 식용유 1 박스는 빼셨다. 오늘 산 재료들은 아마 다음 날의 ‘밥퍼’ 사역을 위하여 쓰실 것인 가 보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면서 마크로 직원들이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 준 것 같았다. 아마도 마크로 내의 현지인들에게도 한인 교회의 ‘밥퍼’ 사역이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그 곳 종업원들의 태도가 약간은 달랐던 것 같다. 말을 하진 않았어도 마음 속 깊이 고마운 마음과 따스한 눈길이 전해 지는 듯 했다.

부엌에 도착하니 집사님들께서 작은 투명 플라스틱 도시락에 밥 한 그릇, 닭 튀김 한 조각, 오이 2 조각, 토마토 1 조각, 삼발 1 봉지를 넣어서 200여 개의 도시락들을 이미 다 준비 하셨다. 우리는 도시락들을 차에 실은 뒤 도시락용으로 만든 음식들로 점심을 대신 하였다.

점심 식사 후 도시락을 나눠 주러 차를 타고 판중 브리옥으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어느 낡은 기차역. 걸 모습이 어떤 다쓰러져 가는 하얀 궁정 같아서 약간 어리둥절 했다. 도착해서 트렁크를 여니 갑자기 허름한 차림의 현지인들이 몇 명 우르르 나와 악수를 청하고 갖고 온 음식들을 머리에 이고 갔다. 아마도 이곳에서 매주 ‘밥퍼’를 고대하여 어려운 삶을 연명하시는 분들 같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폐허가 된 기차역이었다. 매우 황폐해 보여 정말 한국의 60년대의 비 내리는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래도 구멍이 여기저기 뚫렸지만 큰 지붕이 있어 비와 햇빛을 피하여 돛자리를 깔고 살거나 그 옆에 판자집을 지어서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 아이들도 여럿 있었고 대부분 아기를 안은 아낙네들이고, 개중에 늙으신 노인 분들과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옥목과 빨래도 자주 못해서 때에, 가난에, 절망에, 삶의 외로움에 찌든 사람들이 같아 보였다. 몸이 다쳐 불구가 된 이들도 있었고, 걸보기엔 몸이 성한 이들도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 속 깊이 찌푸린 주름과 무관심이 짙게 배어 있음을 느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자
우르르 몰려와 서로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고 배고픔에
지쳐선지 빨리 밥을 받길 원했다. 번호표를 나눠주고 아우리 줄
을 서라고 해도 그냥 악무가내로 서로 밥부터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말
을 안 듣는 사람들을 보고 답답하고 짜증이 생겨서 한 편으로 우리가 나뉘
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
었다.

도시락을 쌀 때는 정말 오랜 시간과 힘이 들었지만 나눠주는 것은 순식
간이었다. 다행히 도시락이 남아 번호표를 못 받은 이들에게도 더 줄 수 있
었다. 아마 번호표로 도시락을 나눠 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이 분들에게서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런 무
질서한 곳에서도 서열이 있나 보다. 어떤
여자 분께서 나오셔서 줄을 서라고 소리도
치시고, 어떤 노인분은 몇 개의 도시락을 갈
곳 없는 그들을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관리인들에게 줘야 한다며 따로 챙기셨다.

그들은 도시락을 받아 제 자리로 돌아가 손도 씻지 않고 열
심히 “Enak, enak! (맛있다)” 하며 손으로 꼭꼭 집어 먹었
다. 먹을 때만큼은 역시 조용했다. 그들이 식사 하는 중에 우리
는 목사님과 주변을 잠깐 둘러 보았다. 돛자리와 이불로만 집을
대신하여 사는 이들도 있었고 그보다 좀 나으면 판자 집을 짓고
산다고 한다.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목욕을 한번 하려면 1000

루피아를 내야 한데 쓰레기를 잔뜩 모아 하루종일 판 것이 6000 루피아 밖에 안 한다고 하니 수입도
일정치 않은 그들에게 1000 루피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 자연히 청결은 둘째치고 병이 나도 병
원에 갈 수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밥 3끼를 제대로 챙겨 먹기도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그저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되는 대로 하루 하루를 사는 것이 그들에게 생활이 되었다고 한다.

없이 살면서 사회에서 많은 배신과 상처를 받았을 그들이기에 아우리 번호표를 나눠주고 줄을 서서 차
례대로 도시락을 준다고 해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워낙 없이 살
았기에 먼저 받지 않으면 금방 다 없어질 거라는 깊은 강박관념 때문에 한두 번의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이해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았다.

일을 마친 후 나와 친구는 외숙모께서 한국 치킨 집에서 점심을 사주신다고 해서 그 곳으로 갔다. 맛
있게 먹으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느꼈다.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위해 입
고 먹고 살면서도 감사 할 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의 철 없음을 반성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는 1끼
먹기도 힘들어 병 들고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를 깨달았다. 밥과 닭튀김 하나 있는 도시락 한 개
를 받고도 맛있다고 행복해 하며 먹고 희망을 얻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밥이다. 그것만 보아도 ‘밥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이 알아 주지 않는 이 사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지 알 것 같다. 이 사역이
정말로 더욱 발전돼 가길 바라며 나도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다음에 그들
의 허기진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나는 그들의 허전한 마음을 생명의 말씀과 사랑으로 따스하게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여권법이 바뀌었습니다.

여권법이 새롭게 바뀌어 2008.6.29.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누구나 여권을 가진 시대이므로, 새 여권법으로 인해서 바뀌는 사항들을 문답형식으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도대체 왜 여권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답) 여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이제부터는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전자여권의 도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이자 전 세계적 추세이며, 6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45개국이 전자여권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여권은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여권의 국제 표준화 추세에 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0개국 대표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여권을 포함한 여행문서의 국제표준을 제정합니다.

질문) 전자여권이라는 게 뭔가요?

답) 여권 표지 안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여 여권 정보를 수록한 여권을 말합니다.

- 여권 표지 안의 전자장치에는 현재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수록되는데, 그 목적은 위변조를 방지하고 여권의 도용되는 사례를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2010.11부터는 지문정보(양손 검지)도 전자여권에 수록되는데, 항간에 혈액형, 신용정보, 범죄기록 등이 저장된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게다가, 전자여권을 사용하시면 공항만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지고, 각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전자여권 전용 출입국 창구가 확산되면, 전자여권 소지자는 동 창구를 이용, 더욱 편리하게 출입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언제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한다는 얘깁니까?

답)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여권은 금년 8.25(월)부터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대사관에서는 금년 10~11월경 준

비가 갖춰지는 대로 전자여권의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발급이 개시되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 우리대사관을 통해 전자여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 발급된 후 외교행낭으로 우리대사관에 배송되므로,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대략 3~4주가 소요됩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권은 못쓰게 됩니까?

답) 아닙니다

- 기존여권(사진부착식 및 사진전사식 여권)도 계속 유효하므로,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남아있는 유효기간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처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으므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재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전자여권으로의 교체하시기 희망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효한 여권을 반납하시고 새로 여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되므로, 신규 여권 신청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질문)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간단한 거 아닌가요?

- 새 여권법 아래서 여권의 기간연장제도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칩 속에 내장된 유효기간과 고무 날인으로 연장된 유효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출입국 과정상 혼선이 생길 타이므로 부득이 여권 기간 연장이라는 간편한 절차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다만, 예전의 기간연장을 받은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그 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맞추어 새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급하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만일 여권발급 절차가 진행중에 있을시 국내에 긴급한 사유로 귀국을 해야할 경우에는 단수여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 단수여권은 국내 도착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정상적인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다시 다른 곳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이제 여권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설이 있던데요?

답) 맞습니다. 다만,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사관에서 전자여권의 발급이 개시되기 전(대략 금년 10-11월경 예상)까지의 과도기 동안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을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여권법 시행규칙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 즉, 자카르타로부터 먼 지역에 계신 교민께서 소지하고 계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현행여권을 신규발급 받기 희망하시는 경우,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방한인회 등을 통해 여권을 대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일단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면 여권발급에 3-4주가 소요됩니다.)
- 전자여권의 발급이 개시되면 부득이 대리 여권신청 접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왜 대리신청을 못하게 하나요?

답)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같은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본인이 창구를 방문하여 신원확인을 거치는 일은 사실 기본적인 요건인 셈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분증으로, 출입국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은행 거래 등의 기초 증빙서류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권 본인직접신청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여권은 본인이 직접신청토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 또한, 조만간 지문날인이 도입되면 어차피 본인의 날인을 창구에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겠습니다.
- 일반복수여권의 경우 유효 기간이 10년이라는 긴 기간입니다. 여권을 도중에 분실하지 않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여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해외에서의 신분증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큰 불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 그럼 갓난 아기도 다 본인이 여권신청을 하란 말씀입니까?

답) 아닙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을 경우이거나 18세 미만(단,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2) 배우자
- 3)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질문) 신청한 여권을 찾아갈 때도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답) 여권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시에는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질문) 잠깐만요, 혹시 전자여권이 발급되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는 건가요?

답) 아닙니다. 미국정부는 전자여권의 도입을 자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유일한 이유는 물론 아닙니다. 한-미 양국이 각각 준비해야 하는 많은 사항들이 있어 현재로서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의 구체적인 시기를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설사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로의 무비자 방문이 저절로 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은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홈페이지(www.0404.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다시 여권이 필요해질 때까지 그냥 있으면 되지요?

답) 그건 위험합니다.

- 여권분실후 무효화 처리를 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도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재발급은 당장 받지 않더라도 가급적 여권의 “분실(완전무효화)” 처리를 조속히 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분실(무효화) 처리된 여권의 일반사항은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에 통지되며, 향후 그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과 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주식회사(P.T.)의 이사회(Direksi)

인도네시아 제도상으로 모든 사업자는 비법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이 되며, 비법인 사업자는 민법 제 1618조부터 제1652조까지에 규정된 파르너실(Maatschaap)과 상법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상사(Firma/Fa)와 상법 제19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에서 규정된 합자회사(Commanditaire Vennootschap/CV)가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인, 2007년 법률 제40호로 규정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PT), 2003년 법률 제19호로 규정된 국영기업체, 1992년 법률 제25호로 규정된 조합(Koperasi), 2001년 법률 제17호로 규정된 재단, 1992년 법률 제11호로 규정된 년금 기금(Dana Pensiun)과, 민법 제1653조부터 제1665조까지에서 규정된 일반단체(Perkumpulan Umum)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한 단체(Organisasi Masyarakat)들이 있다. 이 중에서 주식회사는 현재까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걸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 되는 모든 외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는 CV 혹은 Fa 형태의 투자를 불허하며 반드시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에게만 허용하는 업종이 있으며 증권시장에 상장도 주식회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3대 기구, 즉,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회 중에 지난 호에서 설명한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인들이 모여서 이사회원 및 감사회

원에 대한 인사 문제와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주요 안건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기구이나 이사회는 회사를 경영하는 주체이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이사회는 두뇌에 해당되며 주주총회는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주식회사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상법에 주식회사에 관하여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고 주주의 책임과 권리가 불명했으며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권리와 책임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감사회는 선임을 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이와 같은 법의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며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써 세계 경제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주식회사법이 1995년 법률 제1호이다. 1995년 주식회사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 체제를 갖추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영미법 체제를 가미한 첫 번째 법률로서 인도네시아 법률 발전 역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주주와 이사회의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995년 주식회사법을 12년 동안 시행을 해본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어 처음에는 부분 개정을 계획했었으나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 1995년 주식회사법을 아예 폐기하고 2007년 법률 제40호로 신 주식회사법을 2007. 8. 16. 발효시켰다. 새 주식회사법은 공익을 강조하고 있다. 새 주식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의 임무, 책임, 주주와 주주총회와의 관계, 월권, 선임 및 해임과 주식회사법에서 이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법철학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Direksi)

주식회사법 제1조 5항은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사회란 회사의 설립 목적과 목표에 합당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 정관에 따라 법원 내외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의 기구이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란 정관에 나와 있는 업종의 사업 경영을 뜻한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도 회사 정관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이란 경영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경영 결과 보고에 대하여 주주총회의가 승인을 해주면 이사회는 경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나 경영 결과 보고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이사회가 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 내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은 회사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하여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2. 이사의 구성

- 2.1. 이사회는 1인 혹은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면 1인은 대표이사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이사가 된다. 대표이사는 Direktur Utama 혹은 Presiden Direktur로 호칭하며 이사는 Direktur로 호칭한다. 1인 이사의 Direktur는 사장을 뜻한다. 이사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는 전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이나 합작회사인 경우에는 Joint Venture Agreement에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총원 몇 명에 외국 주주 측이 몇 명 내국 주주 측이 몇 명 대표이사는 어느측이 맡는다고 자세하게 합의해 놓는 것이 소 주주가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 2.2. 업종이 사회 많은 사람의 돈을 헐들링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혹은 상장 회사의 이사회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이사회원의 업무 분장

이사회원의 업무분장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아무런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 자체에서 결정한다.

4. 이사회원의 피선 자격

- 4.1.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이사회원으로 피선될 자격이 있으나 법원 판결문으로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써 파산에 책

임이 있다고 선고된 자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거나 금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피선 자격이 없다.

- 4.2. 특정 분야 업종 주식회사의 이사회원의 피선 자격은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법규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이사회원의 선임 및 해임

- 5.1. 최초 이사회원의 선임은 회사 설립인이 한다.
- 5.2. 이사회원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주주총회는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회원일지라도 하시라도 해임할 수 있다.
- 5.3. 감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원을 임시로 해임할 수 있다. 감사회가 이사회원을 임시로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면 해임이 확정되며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즉시 복권한다. 감사회의 이사회원 임시 해임 시효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최장 30일이다
- 5.4.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을 임기를 정해 선임하며 계속 선임할 수 있다.
- 5.5.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의 선임 혹은 해임 발효 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발효 일자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 혹은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폐회 순간부터 발효한다.
- 5.6.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선임 혹은 해임을 결정하면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사회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급여 및 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결정하며, 주주총회는 이사회원의 보수에 대한 결정권을 감사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감사회 결의서로 이사회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을 결정한다.

7. 이사회원의 회사 경영책임

- 7.1. 이사회는 정관상의 회사 설립 목적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이사회원이 잘못 혹은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원의 잘못 혹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다. 법률 혹은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원의 임무로 규정된 사항

을 이행하지 않거나 급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경우에, 발행 주식의 최소 10%를 보유하고 있는 단독 혹은 복수 주주, 다른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은 회사의 명의로 해당 이사회원을 상대로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면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의 주주인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승소 시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

7.2. 이사회회의 직무

7.2.1. 회사가 법인자격을 취득하도록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임무가 있다. 회사의 설립인들이 회사를 설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형식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법인자격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형식요건을 갖췄다는 확인을 해주면 30일 이내에 실질요건인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관계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게 법인자격을 부여한다.

7.2.2. 회사의 장관 개정 사항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혹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확인을 요하는 사항을 일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증서로 변경하고 공정증서로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통보하여 승인서 혹은 통보 확인서를 득하여야 한다.

7.2.3. 매년 새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감사회 혹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7.2.4. 매년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받아드리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경영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의 책임이 면제 되고 그 책임이 회사로 옮겨지나 이사회에서 제출한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원이 연대로 경영결과에 대한 그 책임을 지야 한다. 현실적으로 많은 진출기업들이 연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전년도 경영결과 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벌리상으로는 대표이사 이하 전체 이사회원이 경영결과에 연대로 책임을 지야 한다. 동업 혹은 합작회사의 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례 주주총회에 경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7.2.5. 이사회는 주주명단,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연간 경영결과 보고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 및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주주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열람을 허용하고 주주총회 회의록과 연간 경영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7.2.6. 이사회원은 본인 혹은 이사회원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및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이사회는 이를 회사의 특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본인 혹은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및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이사회원은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의 손해를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7.2.7. 한 회계연도 기간 중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회사의 재산의 50%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발행된 주식의 최소 3/4을 보유하고 있는 단수 혹은 복수 주주가 참석



한 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주주 최소 3/4 찬성으로 가결한 주주총회의 의결서가 있어야 한다.

7.2.8.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직무 뿐만 아니라 제반 법규에 규정된 의무사항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

8. 이사회회의 회사 대표권

8.1. 이사회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원의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각 이사회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이사회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다. 누가 회사를 대표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원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8.2.1. 회사와 해당 이사 간에 법원에 소송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나

8.2.2. 해당 이사회원이 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8.3. 상기 8.2.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에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가?

8.3.1. 회사와 이해 상충이 없는 다른 이사회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8.3.2. 모든 이사회원이 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8.3.3. 모든 이사회원과 모든 감사회원이 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한다.

9.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이사회원의 책임 한계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주식회사의 이사회원의 책임이 유한 책임이나 무한 책임이냐는 자주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 채무자인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고 회사의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잠적해버리면 채권자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납품처의 파산 영향으로 납품업체가 폐업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바, 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에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고찰해본다.

9.1.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파산 선고와 동시에 관재인을 임명하며 파산이 선고된 순간부터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회사에 대한 권리가 정지되며 관재인이 회사를 장악한다.

9.2. 관재인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하여 회사를 실사하여 파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9.3. 주주의 책임의 한계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유한책임이 무한책임으로 바뀐다. 무한책임이란 사유재산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9.3.1. 회사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9.3.2.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한 경우

9.3.3.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주주가 가담한 경우

9.3.4. 직접 혹은 간접적인 불법행위 방법으로 회사의 재산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9.4.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사회원의 책임이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다.

9.4.1. 불성실 경영, 잘못 경영 혹은 경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9.4.2. 불성실 경영, 잘못 경영 혹은 경영 과실로 인하여 회사 파산

을 초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지난 5년 기간 중 이사회원으로 재직할 적이 있는 자로써 불성실 경영, 잘못 경영 혹은 경영 과실로 인하여 회사 파산을 초래한 자.

9.5. 감사회원의 기본 직무인 이사회에 경영에 대한 감독 및 어드바이스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가쳐온 경우에는 감사회원의 책임이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다.

9.6. 채권자의 주주,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9.6.1. 회사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주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이용한 경우,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주주가 가담한 경우, 혹은 주주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불법행위로 회사의 재산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주주의 책임이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바뀐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 상기 열거한 사항 중에 하나라도 입증 가능하면 채무자인 회사가 망했다고 초기하는 것 보다는 채권자는 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9.6.2.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불성실 근무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각각의 책임이 유한 책임에서 무한 책임으로 바뀐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의 불성실 근무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봤거나 파산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입증 가능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가 망했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

9.6.3. 민사재판은 채무자인 피고가 국외로 피신하여 주소지 혹은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도 재판이 가능하며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는 상속되므로 주주의 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도 있다.

15.1. 이사회는 회사의 설립목적에 합당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정관 및 주식회사법에

서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적절한 경영

방침을 세워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15.2. 이사회는 이사 1명 혹은 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하나 사회의 돈을 모아 운 용하거나 회사 채권을 발행하거나 상장법인의 이사회에 최소 인원은 2명 이상이다. 이사회원의 인원은 홀수 인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짝수 인원시 가부 동수 발생으로 회사 업무 처리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파트너 간 분쟁 발생 시 회사 업무 중단 사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 15.3. 이사회원의 직무 분장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원의 직무분장을 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15.4. 피선임 전 5년 기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의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파산선고에 책임이 있는 자 혹은 금융 범죄로 국고에 손해를 끼친 죄로 형을 받았던 자는 이사회원으로 피선 자격이 없다.
- 15.5. 이사회원에 대한 선임, 교체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일 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5.6. 이사회원의 급여 및 수당 등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15.7. 전체 이사회원은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야 하며 불성실한 경영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5.7.1. 회사의 손실 발생에 이사회원의 잘못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 15.7.2.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경영을 한 경우
- 15.7.3. 손실을 가져온 경영행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해충돌이 없는 경우
- 15.7.4. 손실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한 경우
- 15.8. 이사회원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 시 총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해당 이사회원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관할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5.9. 이사회원과 회사 간에 소송발생 시 혹은 회사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이사회원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 15.10. 상술한 “15.9”항의 상황이 발생 시 회사 대표권 순위

15.10.1 다른 이사회원

15.10.2. 전체 이사회원이 상술한 “15.9”항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15.10.3. 전체 이사회원 및 감사회원이 상술한 “15.9”항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가 회사를 대표할 것인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15.11. 이사회는 법원 내외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의 회사 대표권은 주식회사법,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으나, 주주총회의 이사회의 회사대표권에 대한 결의가 주식회사법과 정관에 위배 되서는 안 된다.

15.12. 이사회는 의무적으로 주주 명단,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및 연례 보고서 작성 보존해야 하며 주주의 서명 요청 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15.13. 한 회계연도에 1회 혹은 수회에 걸쳐 전체 회사 재산의 50% 이상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 요건은 정관에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3/4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한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소집되는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재 소집할 수 있으며 재 소집된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발행주식 총액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정관에 별도로 더 높은 성원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참석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5.14. 회사에 파산 선고가 확정되었으며 파산 선고 발생 이유가 이사회원의 회사 경영에 잘못 혹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이사회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로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14.1. 파산 선고 발생에 이사회원의 잘못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15.14.2. 회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성실 및 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경영을 한 경우

15.14.3. 회사 경영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해상반의 경우가 없는 경우

15.14.4. 파산 선고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한 경우

한인회 강당을 양서로 채워주세요



교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한인회 강당 리노베이션 공사가 많은 교민들의 후원으로 6월 말 완공되어 새롭게 오픈합니다. 한인회는 보다 내실 된 강당을 꾸며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캠페인에 교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구합니다.

★양서 한 권 보내기 캠페인

한인회 강당 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위해 교민여러분 가정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양서 한 권을 한인회로 보내주세요.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교민께서는 한인회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양서 보내실 곳 : 한인회 사무국(021-521-2515)

Korean Association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Korea Center Bldg, Jl.Jend. Gatot Subroto Kav.58 Jakarta

원시와 문명의 여로 - Solo에서 족자까지

글 : JKS 국어과 교사 오현주



새벽 2시 알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잘 떠지지도 않는 눈을 비비며 쌀을 씻어 전 기밥솥에 올리고 다시 침대로 기어갔다. 새벽 4시에 어김 없이 이슬람 사원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려 화들짝 일어났다. 아차! 오늘 역사와 신비를 안고 있는 도시 Solo로 문화 탐방 가는 날!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문화 탐방을 가기로 한 양미숙 선생님은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솟아나도록 김밥을 다 만들어 놓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4시 50분까지 공항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 일을 어쩌나 하면서 후다닥 준비를 마치고 택시를 불러 타서 출발한 시간이 4시 30분. 우리는 택시 속에서 투덜투덜하고 있었다. “아니, 무슨 문화탐방도 좋지만 꼭두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스케줄을 잡아 놓은 사공경 선생님은 너무 욕심이 지나친 것 아니야!” 늦어서 미안한 마음을 엉뚱한 곳에만 전가시키는 묘한 뒤틀린 심사로 공항에 도착해보니 벌써 다른 분들은 모두 탑승 대기실로 가고, 우리를 기다리는 신유희 씨를 만나 탑승 절차를 치르고 대기실에 도착했다.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들 수 없었

지만 모두들 들뜨고 환한 얼굴로 앉아 있는 모습에 섞여서 나도 모르게 설렘에 부풀어 비행기와 함께 마음이 날아올랐다.

Solo, 그 이름은 왜 Solo일까? 전혀 낯설지 않고 그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던 듯한 유서 깊은 도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잘 정리된 도시의 거리와 기와로 지붕을 한 독특한 건축 양식의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비옥가봉(比屋街峰)이라는 말이 저절로 연상되는 품위 있고 격조 있는 도시의 이미지이다. Solo는 긴 강이 여러 갈래로 흐르고 그 강가에서 자바 원인이 살았던 곳이다. 그 야말로 강줄기를 거슬러 거슬러 그 근원을 헤아려 보기에 너무도 유서 깊은 도시 Solo! 강가를 지나서 처음 들른 곳이 Universitas II Maret(UNS)였다.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보다가 널찍한 캠퍼스에 고풍스러운 건물로 자리 잡고 있는 대학 건물을 보니까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어져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다. 고대 자바 원인이 처음 강가에서 돌을 주워 들고 사냥에 나섰을 때 그때부터 형성된 문명을 만

드는 유전자가 대대손손 이어져서 지금 이 캠퍼스에서 컴퓨터의 자판을 치면서 생명의 근원을 논하고, 우주의 이치를 파헤치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현대인의 피 속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경이를 느꼈다.

버스가 해발 1000m 가까이 산길을 오르고 있다. 모락모락 운해는 피어오르고 하늘에 닿을 듯 자꾸자꾸 기어올라서 도착한 곳 Candi Sukuh 사원. 힌두의 신을 모셔놓은 사원으로 크지는 않지만 많은 상념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사원이었다. 남미에서 번성했던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와 같은 석조 건물이 입구에 있었다. 초입은 넓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가장 뒤편에 석탑을 세워둔 구조가 밖에서 보면 마치 어머니의 자궁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원 안에는 남근 모양을 한 Lingam이 새겨져 있는데 이 사원이 주는 느낌은 마치 생명이 근원을 찾아든 것 같은 안온함과 신비함을 일깨워 무의식의 세계를 헤매어 자신의 근본을 찾아가는 명상의 과정을 연상시킨다. Candi Sukuh를 나와서 Candi Cetho를 찾아갔는데 이 사원은 Sukuh 사원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사원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뿐만 아니라 토착신앙과도 결부되어 마치 Solo의 정령들이 살아서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Sukuh 사원보다는 규모가 크고 동상과 부조물이 더 많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사가 산을 끌어안고 세상을 품어내는 듯한 지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사원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돈되고 안정된 느낌을 주어 Cetho 사원에서 마치 이황의 도산서원과 같은 이지적인 면모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본 Sukuh 사원의 소박함과 원시성이 더 좋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락모락 오르는 안개 속에서 느껴지는 신비와 천국을 향하는 마음처럼 하늘로 향한 탑이 신심과 평화와 안온함을 불러 일으켜 인상 깊었다.

Solo의 밤이 깊어갔다. 저녁 무렵 Solo에 있는 바틱 박물관에서 우리는 Solo 바틱의 진수를 보았다. 내륙의 바틱이라서 그런지 색이나 무늬가 현란하지 않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디자인에 매료되어 너나없이 바틱을 장만하였다. 밤이 되어 말이 끄는 안동을 타고 바틱으로 성장을 한 후에 시내를 가로질러 Solo의 옛 왕궁으로 들어갔다. 마치 신데렐라가 된 듯이 조명이 화려한 왕궁에서 현재 왕의 아홉 번째 왕자라고 하는 잘 생긴 청년의 안내를 받으며 왕궁의 옛 영화를 둘러보았다. 이태리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멋진 상들이에 빛나고 각종 보물과 금은으로 만들어진 유물들을 보면서 멋진 정원을 지나 그들의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마침 문화탐방을 이끄는 사공경 선생님과 박미선 씨가



생일을 맞아 우리는 성대한 생일 파티를 왕궁에서 한 셈이다. 왕족과 더불어 식사하는 생일의 주인공 두 분과 생일파티에 초대된 우아한 귀족처럼 성대한 만찬을 즐기고 또 무르익는 밤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무희들의 춤을 감상했다. 이제 지난날의 왕족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전통을 지키면서 부단히 이어가는 왕족의 명맥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쓸쓸한 비애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또 한편 존경스럽기도 했다. 우리 왕조의 전통은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어떻게 사라져 갔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였다.

Solo에서 족자로 버스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화탐방반 식구들은 언제나 만나면 반갑고 쉽게 친해진다. 아마도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과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을 지닌 동지라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도 아,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 나와 다른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구나 하는 놀라움을 문화탐방을 통해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

족자는 역시 전통과 역사의 도시이다. 그 유명한 빠람바난에 도착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 라라 종그랑의 전설과 그녀를 사랑했던 적국 왕자의 이야기가 커다란 탑 속에 녹아 힌두의 신전이 신비와 마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었다. 2006년 족자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흔들리고 기울어져 한편에는 무너져 있는 신전의 모습이 어찌면 사람의 마음을 훔쳐 내리는지..... 섬세하고 화려한 신전의 모습과 거대한 탑 속에 갇혀 있을 공주의 안타까움과 이국의 종교 문화가 자아내는 신비함에 우리는 그저 말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빠람바난에서 나와 해변가를 찾았다. 밀려오는 인도양을 바라보며 안동을 타고 야생마처럼 해변을 뛰어다니고 파도의 왕성한 생명력을 가슴에 담았다. 라마야나 춤과 함께 생명과 신비의 물결 속에서 벽찬 가슴으로 족자의 밤이 무르익어 갔다.

문화탐방 마지막 날, 세월이 느껴지는 호텔에서 나와 배짜를 타고 물의 궁전으로 갔다. 왕의 풋사랑을 생각하며 왕후가 명상했다는 지하수로 갔다. 켜켜히 쌓인 시간을 느끼게 해 주는 중세 시대의 터널 같았다.

우리는 이 날을 얼마나 설레며 기다리고 손꼽았던가. 이 날은 인도네시아의 석가탄신일. 한국보다는 일주일 정

도 늦은 석가탄신일이지만 그것은 아마도 우리와 풍습이 다르고 역법의 차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로부두르로 향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중국계 인도네시아 인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고 오늘 있을 행사 때문에 보로부두르 주변은 엄청나게 길이 밀리고 사람이 많이 몰릴 거라고 하였다. 우리는 차속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다른 것은 생략하더라도 아니 보로부두르에 갔다가 못 빠져나와서 집에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보로부두르에 가야 한다고 마음을 모아 보로부두르가 있는 곳으로 차의 방향을 돌렸다.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우리 인솔 팀은 무사히 보로부두르에 우리를 데려다 주었고 사원 입구를 피해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주차하고 걸어서 사원에 도착했다. 사원 입구는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과 차들이 운집해 있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가면서 사원의 계단 하나씩 하나씩을 밟으며 올라갔다.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라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다. 안산암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을 어떻게 운반하여 건축하였는지, 그리고 왜 천년 가까이 머라피 화산의 잿더미에 묻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원이다. 1991년 유네스코의 세



계 유산 목록에 등록되어 보존되고 있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그동안 폭파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사원에 있는 수많은 불상의 머리가 파괴되어 있는 참혹한 훼손을 겪기도 하였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23cm 높이의 안산암 벽돌 100만 개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올려 만든 연꽃 모양의 피라미드이다. 2층부터 5층까지는 전체 4km에 부처의 탄생과 고행, 득도에 이르는 일생의 이야기가 조각되어 있다. 2500개가 넘는 부조 석조에 부처, 보살, 왕족 등 등장인물이 만 명이 넘고 동물과 자연의 경치가 새겨져



있어 그 정교함이 놀랄 만하다. 회랑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지막 6층까지 이르게 되는데 점점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끝까지 오르면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오른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인간의 가냘프고 여리고 무딘 손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어마어마한 사원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해탈을 열망하는 불심과 왕조의 번성을 기원하는 충성심과 강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공사에 몰아넣는 지도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공사를 벌인 왕조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진나라의 만리장성도 그렇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 마야의 유적도..... 유물은 남는데 왕조는 어디로 갔을까? 그러나 어쨌든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복잡한 상념에 잠기기도 했지만 그 대단한 건축물의 위용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 하나하나

미미한 존재이지만 인간이 합한 힘은 정말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땀 흘리며 돌을 굴리고 조각을 새기는 가난한 서민의 애뜻한 마음도 저 속에 담겨 있겠지 하는 짙은 마음이 들었다. 물려드는 불교 신자와 보로부두르에서 행해진다는 석가탄신제를 뒤로 하고 빠져나오는 아쉬움이 컸다.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감흥이 달랐던 것처럼 언젠가 또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거라는 인연을 느끼며 다시 찾아 올 그때는 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원을 나왔다.

촌각의 시간도 아까워하는 사공경 선생님은 공항 가는 길에도 놀라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셨다. 탑승 예정 시간 1시간 반 정도를 남기고 비행기 타러 가는 길. 이제는 당연히 공항으로 가는 길이라니 생각했는데 우리는 Saptahoedojo 라는 작은 공연장에 들었다. 이 공연장은 민속 박물관처럼 신기하고 예쁜 소품들을 전시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레스토랑이 있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어 Jaredance라는 공연을 관람하고 한바탕 놀이에 빠져들었다. 역시 짜투리 시간마저도 알뜰하게 챙겨서 무언가를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사공경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탐방길 내내 많은 것을 준비해두고 하나라도 더 느껴보게 하려고 애쓰시는 선생님의 마음이 많이 보였는데, 그래

도 뒤에서 조금씩 뺄거리면서 탐방을 너무나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묘한 일탈의 기쁨을 느끼게도 해주었다. 여행은 무엇보다 일상에서 벗어남, 그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 그리고 낯선 곳을 헤매며 경험하는 새로움이 좋다.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3일 동안 함께 했던 문화탐방반의 식구들과 정이 듬뿍 들었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잠시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자카르타의 시가지가 새삼 정겹게 느껴지는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짐도 풀지 않고 내일을 위한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자바의 원인과 만나서 원시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힌두 사원을 맨 발로 뛰어다니며 오늘의 인간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를 열띠게 토론하고 있었다. 인간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다.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를 밟고 사는 인간의 꿈과 호기심이 아마도 인류를 지탱하게 하는 원천이라.

단체협약의 작성

지난 호에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 운영의 가장 근간이 되는 취업상의 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항목 등 노사쌍방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런 사항들을 규정하게 된다.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단체협상, 임금협상 등의 단체교섭 권이며 그 중에서도 근로조건, 쌍방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이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단체협약과 관련한 사항 즉, 단체협약이란 무엇이고,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작성 및 승인을 받는지,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 단체협약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성공적 단체협상을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단체협약(Perjanjian Kerja Bersama)이란?

단체협약(PKB)이란 노동부에 등록된 일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연합체와 일개 사용자 또는 사용자 연합간 협상에 따른 계약으로써 근로조건, 쌍방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 단체협약의 특성:

- 노조와 회사가 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적 규범
- 서면으로 작성하고, 노사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함.
- 협약내용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유효기간 동안 협약내용을 준수 하여야 함.(평화의무)
- 단체협약 체결내용은 행정관청에 신고
- 유효기간 만료시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함.

2. 단체협약 작성의 주체?

단체협상은 관계기관에 등록된 일개의 노동조합 또는 몇몇의 노동조합과 일개의 사용자 또는 몇몇 사용자간에 이루어 진다.

통상 단체협약은 전사원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다. 단, 조합원 수가 사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거나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른다.

1) 조합원 수가 사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할 경우:

회사내 1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조합원 수가 전체사원

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사원 선거를 통해 전체 사원 50%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경우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 협상에 있어 전체 사원을 대표 할 수 있다.

2) 복수노조의 경우:

- 전체사원의 과반수 이상 되는 조합원을 보유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 전체사원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간 연합을 통해 과반수를 확보 사용자와 협상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든 노동조합은 각각의 조합원수에 비례한 팀을 구성하여 단체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3. 관련근거?

- 1) '03년 新노동법, 116조~133조
- 2) 장관령 사규 작성/승인 절차 및 단체협약 체결/등록에 관한 장관령 No.48/Men/VI/2004

4. 단체협약 작성:

- 1) 1개 회사에는 회사내 전사원에게 적용되는 단지 1개의 단체협약만이 체결된다.(제118조)
- 2) 사용자는 회사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동안은 단체협약을 사규로 대체하는 것이 금지된다.
- 3) 회사내 노동조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사규로 대체할 경우 사규내 규정은 단체협약의 규정보다 낮게 조정될 수 없다.

5. 단체협약 기재사항(제124조):

1) 단체협약은 최소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a.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b.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c.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발효시점
- d.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서명

2) 단체협약 세부 사항:

- a. 제1장: 단체협약 작성의 주체
- b. 제2장: 일반적 사항
 - 조합원 범위, 의무 및 권리 조합활동
- c. 제3장~13장:
 -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 근로시수에 관한 사항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 급여에 관한 사항
 - 보건/의학 및 작업안전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및 근로복지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근로수칙에 관한 사항(결근, 지각, 조퇴, 징계)
 - 고충해결에 관한 사항
 - 해고에 관한 사항(각종 근로관계 해지)
- d. 제14장: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전 3개월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

- 4) 상기 3)항의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현행 단체협약이 최장 1년간 유효하다.

8. 단체협약 준수/공지 및 사본 배포의 의무

(노동법 제126조):

- 1) 사용자,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단체협약 내의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사용자 및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내용 또는 변동사항을 전사원에게 공지할 의무를 진다.
- 3) 사용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단체협약 인쇄 및 전사원에 게 배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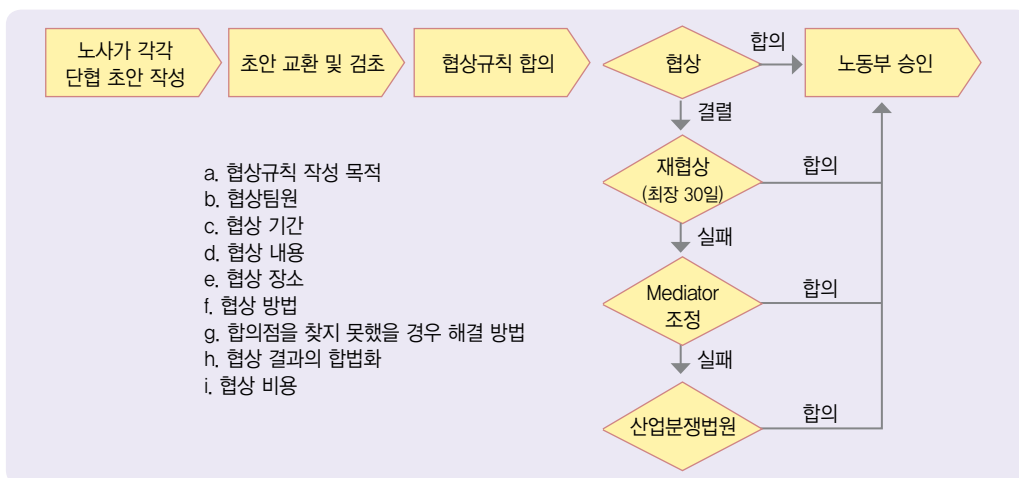
9. 단체협상 장소 및 관련 비용:

- 1) 단체협상 장소는 해당 회사내 사무실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또는 쌍방이 합의한 별도의 장소로 한다.
- 2) 단체협상 관련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쌍방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기타:

- 1) 단체협약 규정은 현행 법규 규정과 배치될 수 없다.
- 2) 단체협약 규정이 현행 법규와 배치될 경우 현행 법규와 배치되는 해당 규정은 법적으로 무효하며 현행법이 적용된다.

6. 단체협약 작성/승인 절차?



7. 단체협약 유효기간(노동법 제123조):

-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임
- 2) 상기 1)항의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3) 차기 단체협약 체결협상은 빨라야 현행 단체협약 만료

◆ 성공적 단체협상을 위한 전략 및 전술

1. 단체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

- 1) 협상 목표: 노사의 공동 목표 달성
- 노사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노사가 각각 제역할 다하기에 노력해야 함.

- 노조: 회사의 경쟁력 제고 노력(품질, 생산성 혁신 등)
- 회사: 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 노력(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2) 협상 주체: 노사 당사자 원칙 주의

노사관계는 노사당사자에 의한 자율적인 관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협상의 주체는 제3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되어야 함. 가끔 제 3자가(노조 상급 단체, 노동부 관계자 등) 개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무책임한 교섭운영, 회사 기밀누설, 노조의 권리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노조 스스로 제3자 개입 배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협상 방법: 전략 전술 보다는 열린 마음

노와 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시 성실성과 합리성을 갖는 것이 중요함.

- 노조: 경영진을 이해하는 노력
- 회사: 노조를 존중하는 노력

4) 득과 실: 화합과 대립시의 Gap

노사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서로의 의견차이와 거리를 좁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함. 노사 갈등과 분쟁은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만 초래함.

2) 교섭 기간중:

- 비교적 쉬운 안건부터 해결(합의)하고, 어려운 안건은 일괄타결 방식으로 진행함.
- 의견절충은 단계적 양보방식 필요.
(상대방 양보→자신 양보, 자신 양보→ 상대방 양보)
-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 발생시 휴회를 통해 회사대책 수립 및 대응
- 회사교섭위원간 차수별 발언조정
(1차 때 A 강경, B 온건 발언, 2차 때 B 온건, A 강경 발언)
- 노사 실무위원간 비공식 접촉 지속하여 의견 조율될 수 있도록 함.
- 노조 강경발언자 비공식 개별설득

3) 교섭 완료후:

- 협상결과 홍보:
 - 협상 결과를 수치화하여 인상 내용을 강조함.
 - 단체협약 체결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경영여건 감안 시 교섭결과가 최선이었다는 공감대 형성토록 함.
 - 단체협상 체결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노력하여 회사의 발전을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함.
- 노조측 교섭위원의 노고를 격려함.
- 교섭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차기 교섭시 활용함.

2. 교섭 기법:

1) 교섭 전 준비사항:

- 사전 준비를 통해 경제 전반 현황, 회사의 경영환경/실적에 대해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매출액, 손익, 품질, 인건비, 생산성 향상, 실적/추이/계획 등)를 공유함으로써 과도한 기대심리를 축소 시켜야 함.
- 노조와 교섭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노조가 합리적인 요구안을 작성토록 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예상 요구안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사전 이해와 조정이 필요함.
 - 현장의 목소리, 노조간부 회의결과, 노조 상급단체 정책방향 등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 노조와 교섭 운영의 Rule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회사측 제시안 준비:
 - 노조 요구안에 대한 각 항목별 요구배경과 합리적 대응논리 및 회사 제시안 수준을 단계별(1안, 2안, 3안 등)로 준비.
 - 회사 교섭위원간 교섭진행 전반에 대한 회사전략 공유와 역할을 분담함.



※ 단체협약 작성의 예:

목 차	i
전 문	1

제 1 장 단체협약 작성주체	2
-----------------	---

제 2 장 일 반

제 1 조 정 의	2
제 2 조 합의서의 적용범위	4
제 3 조 조합원의 범위	4
제 4 조 의 무	5
제 5 조 권리의 인정	5
제 6 조 사용자와 조합과의 관계	5
제 7 조 보 장	5
제 8 조 조합활동	6
제 9 조 조합을 위한 시설 및 지원	6

제 3 장 근로관계

제 10 조 신입사원의 채용	7
제 11 조 신입사원 채용조건	7
제 12 조 수습	7
제 13 조 부서배치 및 전배	7
제 14 조 진급 및 감급	8
제 15 조 직 위	8
제 16 조 직 책	8

제 4 장 작업일 및 작업시간

제 17 조 근로일	9
제 18 조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9
제 19 조 근로일, 근로시간의 변경	10
제 20 조 연장 근무	11
제 21 조 출 장	11

제 5 장 휴일/휴가

제 22 조 휴 일	11
제 23 조 년차휴가	11
제 24 조 출산휴가	11
제 25 조 생리휴가	12
제 26 조 유급휴가	12
제 27 조 휴직의 영향	12
제 28 조 휴직자의 의무	13
제 29 조 휴직후의 의무	13
제 30 조 경조 휴가	13
제 31 조 병 가	14
제 32 조 임시휴업	14

제 6 장 급여제도

제 33 조 급 여	14
제 34 조 제 수당	15
제 35 조 기타 수당	16
제 36 조 급여 조정	16
제 37 조 의병휴직기간의 급여	16
제 38 조 임시휴업중의 급여	17
제 39 조 정직시 급여	17

제 7 장 보건/의약

제 40 조 사내의원	17
제 41 조 보 건	17
제 42 조 입원치료	18
제 43 조 기타규정	18
제 44 조 건강검진	19

제 8 장 작업안전 및 보건

제 45 조 작업안전 및 보건	19
------------------	----

제 9 장 사회보장 및 근로복지

제 46 조 사회보장보험	20
제 47 조 종교활동지원	20
제 48 조 경조지원금	21
제 49 조 회사고소에 의하지 않은 관계기관 구속시 가족보호금	21
제 50 조 식당 및 식사	22
제 51 조 교통수단	22
제 52 조 체육, 여가, 사회 및 문화활동	22
제 53 조 근무복, 신발/샌달 및 ID카드	22
제 54 조 협동조합	23
제 55 조 휴게실	23

제 10 장 숙련도 향상 프로그램

제 56 조 일 반	23
제 57 조 예비작업교육	23
제 58 조 기초 교육	23
제 59 조 직능 교육	24
제 60 조 포 상	24
제 61 조 특허권	24

제 11 장 근로수칙

제 62 조 등록수칙	24
제 63 조 교대근무	25
제 64 조 업무인계	25
제 65 조 당 직	25
제 66 조 출 근	25

제 67 조 결 근	25
제 68 조 지 각	26
제 69 조 지 각	26
제 70 조 조 퇴	26
제 71 조 결근, 지각, 조퇴의 영향	26
제 72 조 면 회	26
제 73 조 작업안전수칙	26
제 74 조 안전수칙	27
제 75 조 입문금지, 퇴장명령	27
제 76 조 폭력, 폭동예방	28
제 77 조 태업, 파업금지	28
제 78 조 부하에 대한 상사의 태도	28
제 79 조 상사에 대한 부하의 태도	28
제 80 조 징계/경고	29
제 81 조 위반급수	29

제 12 장 고충해결

제 82 조 일 반	32
제 83 조 고충처리절차	32

제 13 장 해 고

제 84 조 일 반	32
제 85 조 수습기간중의 고용해지	33
제 86 조 자진퇴사	33
제 87 조 3차 경고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	33
제 88 조 경영합리화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	33
제 89 조 사망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	33
제 90 조 1년 이상의 투병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33
제 91 조 관계기관의 판결	34
제 92 조 정 년	34
제 93 조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34
제 94 조 직무수행 능력 결여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	34
제 95 조 MEDICAL UNFIT	34

제 14 장 유효기간 연장

제 96 조 유효기간	35
제 97 조 변 경	35
제 98 조 연 장	35

제 15 장 마감규정

제 99 조 마 감	35
------------	----



박영민이
영하 Talk Talk

THE INCREDIBLE HULK

에 화를 내느냐에 따라 사람은 무서워지기도 하고 우스워지기도 하는 거겠죠.

SF 연속극인 <Star Trek Deep Space 9>에서 마일즈 오브라이언은 우주정거장 DS9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그는 순박하고 단순하지만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느 에피소드에서 카다시언들에게 붙잡혀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허울 좋은 재판을 받던 오브라이언은 형식적인 자기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내가 할 줄 아는 만큼은 가장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내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볼 때, 나는 그 아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대사는 저의 심금을 울리더군요.

저는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도덕적 완벽주의자도 아니라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두 아들들이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 주어야겠다는 지점이, 저의 그런 타협의 배수진이요 마지노선입니다. 대체로 정신 차리고 지내는 동안에 그 선을 지켜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저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또는 남을 위해 조금의 불

경멸해 마지않는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치미는 모습,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해지는 모습, 남을 얕잡아보는 모습, 정직하지 못한 모습 등등.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전보다 쉽게 화가 나는 걸 느끼는데, 이런 추세로 가다간 예순 살쯤 먹으면 가히 불만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노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순수한 감정이겠지만, 무슨 일

편이나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만이지 않아요. 그런데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정신이 산만해져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으면, 더러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비겁하고 게으른 제가 여러분의 군살처럼 밖으로 빠져나오곤 하는 겁니다. 아, 그럴 때의 실망감과 모멸감이란!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 삶의 가치를 감하는 쪽으로 쏠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채찍과 멸시, 권력자의 횡포, 교만한 자의 작태, 무시당한 사랑의 아픔, 법의 지체된 도움, 관리의 건방진 꼴, 참을성 있는 착한 이가 못난 놈에게 받는 수도 등입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이 자기 자신의 도덕적 불민함보다 더 흉측할 것입니까?

자기 속의 짐승을 길들이는 노력의 다른 이름이 문명이요, 문화일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Dr. Jekyll And Mr. Hyde>는 자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에 관한 우화입니다. 이 소설은 수많은 영화와 연극과 뮤지컬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가 다중인격으로 드러나는 병리적 현상도 여러 영화의 소재가 되었지요. 알프레드 히치코크의 <Psycho>(1960)에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꽃미남 배우 앤토니 퍼킨스는 섬뜩할 정도로 광기어린 이중인격자의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Me, Myself & Irene>(2000)에서 짐 캐리가 심히 정신 사나운 이중인격자 연기를 했습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는 평소에도 워낙 다중인격장애를 겪는 사람처럼 부산스럽게 때문에 그가 연기한 이중인격자는 되려 실감이 나주질 않더군요.

최근 TV 시리즈 <Heroes>에서는 미녀배우 알리 라터가 니키라는 이중인격 수괴 영웅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다는 이 드라마는 <X-men>에다가 <Friday the 13th>을 섞어놓은 것처럼 황당하고 잔혹해서 과연 TV용 드라마가 맞는지 고개를 가로젓게 만듭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을 선사받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간다는 설정의 이 드라마는 도덕적으로도 유약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니키는 반영웅적인 사악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니키라는 인물은 만화 <드래곤볼>의 런치라는 캐릭터를 표절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 있겠습니까, 숙맥인 미소녀였다

가 재채기만 하면 기관총을 휘두르던.) 어쩌면 9/11 사건이 미국에서 '영웅'의 의미를 지나치게 잡아늘여놓은 건지도 모릅니다. 저로선 <Heroes>의 주인공들을 선불리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더군요. <The Old Man and the Sea>의 스펜서 트레이시나 <Mr. Smith goes to Washington>의 지미 스투어드가 그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영웅적이지요.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들.



1996년 영화 <Primal Fear>에서 에드워드 노튼은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가식적인 이중인격자를 '연기하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잘나가는 변호사(리처드 기어)는 그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 성직자를 살해한 그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제 생각에 에드워드 노튼은 90년대 헐리우드가 낳은 최고의 남자배우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가 무색할 노련함으로 폭넓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디 앨런의 <Everyone says I love you>(1996) 같은 로맨틱 뮤지컬 코미디에서 숏기 없는 청춘남을 멋들어지게 연기하는가 하면, <American History X>(1998)나 <Fight Club>(1999)에서는 폭발할 듯한 야성을, <Italian Job>(2003)에서는 비열한 악당의 역할을 천성인 듯 해내고 있어 혀를 내두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헐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헐크라는 괴물 역시 자아의 통제를 벗어난 어두운 이드(id)의 은유이겠습니다. 70년대 TV 드라마에서는 육체미 선수 루 페리노가 헐크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는 최근의 극장판 영화들에 카메오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TV 드라마 배역을 결정할 당시 유럽 육체미선수권대회

를 석권하고 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캐스팅 검토 대상이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탈락되었다는 후문이더군요. 007에서 미스터 조스 역을 맡았던 로버트 킬도 후보였는데 '근육이 너무 빈약해서' 탈락되었답니다.

2003년 극장용 영화 <Hulk>는 대만인 이안 감독이 메가폰을 쥐었습니다. 미끈한 속옷 모델처럼 생긴 호주 출신 배우 에릭 바나가 브루스 배너 박사 역할을 맡았던 이 영화는 이안 감독의 사색적인 섬세함이 마블 코믹스의 활극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브루스 배너 박사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했었다는 만화의 설정에서 착안한 듯 하지만, 아버지와의 존재론적 대립이라는 외디푸스적 테마는 낯선 이질감을 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구축된 헐크의 이미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따뜻한 추억 같은 요소를 담아내지 못하고 말았죠.

어린 시절부터 헐크의 팬이던 에드워드 노튼이 각본작업에도 참여했다는 2008년의 <The Incredible Hulk>는 2003년의 어정쩡한 전편과 과감하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안 감독이 두시간 어치의 내러티브로 풀어내려 했던 배너박사의 내면적 고통을 에드워드 노튼은 우수어린 눈빛으로 간단히 표현해냈고, 릭 베송 감독의 수

제자인 루이 르테리어 감독은 전편의 '날아 다니던 형광색 괴물'보다 한결 더 어둡고 음침하고 험상궂은 헐크를 그려냈습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노튼이 찢어진 바지를 걸치고 거리를 배회하는 장면에서는 옛 TV 연속극의 테마곡이 흘러나와 빌 빅스비가 연기하던 <두 얼굴의 사나이>를 기억하는 올드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박력있는 활극으로 바꾸어 놓더라도, 헐크는 이성으로 가두고 억눌려야 하는 야성이라는, 인간이 살아서 숨 쉬는 한 멈출 수 없는 그 질기고 슬픈 전쟁을 상징하는 괴물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긴 그 전쟁을 서글픈 자기연민의 눈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죠. 그것은 인간의 진보와 이성의 힘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런데도 '슬픈 전쟁'이라는 표현이 불쑥 먼저 나오는 까닭은 아마도 갈수록 그 싸움의 전황이 만만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으므로, 제 속의 괴물을 만나는 사고(!)도 직장생활 중에 일어나곤 합니다. 곤란한 문제는, 그런 날일수록 집에서도 아이들마저 말귀를 영 못 알아듣고, 아내도 짜증을 내서 마음 기댈 곳이 더더욱 없게끔 되어버리더라는 점이더군요. 마치 과음하고 걸으면 나를 향해 뿔뿔벌 뿔쳐오는 땅바닥처럼!



THE INCREDIBLE HULK

IN THEATERS JUNE 13

UNIVERSAL MARVEL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 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1. 세계 경제 위기

● 5월 인플레이션 10.38%

통계청(BPS)은 2008년 5월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1.14%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7.5 ~ 2008.5월의 인플레이션율은 10.38%로 집계 되었다. 5월 달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유가인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고 향후 생산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과 서비스 모두 가격이 미리 올라간 것에 기인한다. 식품가격이 큰 폭(0.47%) 상승하였으며 그 중 쌀 가격이 많이(0.13%) 상승하였다. 5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였지만 증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오는 6월에도, 실질적인 5월 말의 유가인상과 추가 유가인상의 불안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앙은행(BI) 금리 25포인트 인상, 8.50%

6/5 중앙은행은 금리를 25포인트 추가 인상하였다. 중앙은행은 올해의 인플레

이션율이 11.5%~1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앙은행은 현재 국제 유가, 식품가격 상승, 인니 유가인상 등 인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악재가 있지만, 중앙은행 금리 조정, 환율변동성 통제, 유동성 자금의 유입, 시장개방 정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2009년도에는 6.5% 대의 인플레이에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권에서는 금번 BI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 달러화와 인니 루피아 간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자금이 인니로 더 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가 조만간 추가(50p)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율은 추가금리 인상의 기대로 인해 전일 대비 Rp9,316/\$→Rp9,315/\$로 약간의 강세를 보였으며 9,250~9,275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 Banten주 경제인협회(APINDO) 노동부 임금인상 지시 거부

Banten주 APINDO 지역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08년 지역 최저임금(UMK)을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현재 최저임금이 지난 1월 Banten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것이므로 추가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PINDO는 최저임금 중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을 뿐 식대와 교통비등의 수당은 각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반덴주의 700여 업체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사전 통보 없는 정전으로 인해 생산성이 50% 가량 떨어졌으며 추가적인 임금의 인상은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100여 명의 전인니노동자연합(KSBSI)회원들은 임금의 100%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졌다. 노동자들은 임금의 인상이 없다면 유가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자카르타 주지사, 교통요금 인상 26%로 결정

6/4 자카르타 주지사 Fauzi Bowo의 대중교통요금 17~20%(교통편 별) 인상안에 대해 자카르타 시의회는 26% 인상을 결정하였다. 자카르타 운송협회는 실질적인 계산을 위하여 오래된 자동차의 연비로 운영비가 계산된다면 운송비는 적어도 44%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인도네시아 여전히 세계 경제 침체 위기에 노출

경제 전문가 Iman Sugema는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의 침체는 인도네시아 포함한 개도국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겨 줄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현재 세계 식량 및 상품 시장은 상당히 협약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상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부는 국회가 예산을 너무 긍정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 말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침체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이 없는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 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09년에도 인플레 계속

국가개발계획원(Bappenas)은 내년 국제경기가 호전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고유가는 계속적으로 경제를 압박할 것이며, 특히 2009 대선과 총선으로 인해 인플레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Bappenas는 2009년의 인플레를 5.8%로 목표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6.2%를 가정한다면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6.5%에 이를 것으로 내다 보았다.

● 아시아 국가들 미달러화 강세 막기 힘들 것 : Morgan Stanley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미 달러화 강세를 막는데 실패 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국제유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였다. 특히 한국의 산업은행은 자국화의 안정을 위하여 미화 5억불을 매각하였다. 하지만 미연방준비은행은 달러화의 강세로 추가적인 국제유가인상을 막기 위해 더욱더 시장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개발계획원(Bappenas) 2009년부터 단계적 유가인상 권유

Bappenas 내년까지도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월 0.5%~1% 수준의 추가 유가인상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유가인상의 부담을 모두 시장이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5년간은 20% 정도의 소비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회 예산분과 Emir Moeis 의원은 유가인상을 논리적으

로만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정부의 극빈자 구제정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 노동이주부 장관, 지방임금위원회의 조속한 기본급 재조정 요청

노동이주부 장관은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지방임금위원회가 노동자 임금 기본급을 조정하여 주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장관은 회사가 크게 손실을 입지 않으며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기본급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각 지역에 따른 정확한 생계비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카르타 순회 정전 계속하기로

지난 2008년 6월 17일부터 자와-발리 지역에 제한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니소비연구원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전기 소비량이 6~7%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전력생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 감소와 관련, 근무시간에 정전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겠냐는 의견이다. 인니소비연구원은 인니전력공사(PLN)가 전력 최고사용 시간대에 적어도 30%의 잉여 전력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지금은 최고사용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도 전기 생산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 정부 국가 전기 위기에 대책을 마련하라

전력 전문가인 Neghah Sudja는 요즘의 전력난은 이미 국가전력공사(PLN)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발전 용량의 부족뿐만 아니라 발전용 원자재 수급 등에서 PLN은 이미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유류 가격뿐만 아니라 석탄 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전력 생산비 문제 뿐만 아니라 발전용 연료 구매 예산에도 문제가 발생한 상태이다.

전력난이 발생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으나 Suralaya와 Paiton 발전소 고장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21에는 Cilacap 발전소까지 발전을 멈추었다. 석탄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향후 2주 동안 자카르타 전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

로 보인다. 무아라 까랑 발전소와 탄중 뿌리옥 발전소가 보수 관계로 전력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순회 정전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순회 정전이 되고 있는 스마랑 지역은 일 주에 3회 이상 2시간 ~ 9시간 여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자와 중부지역의 섬유공업 협회는 PLN이 단전에 사전 통보를 해주기를 바라며 자발적으로 전기사용을 줄이기로 하였다. 냉장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사전 통보 없는 자가 발전을 돌린다고 해도 잠시의 시간 동안 제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인니 전력 소비량은 17,000MW에 이른다. 2009년 시급히 10,000MW 전력을 추가하지 않는다면, 인니 경제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 중앙은행 : 2009년 인플레이 한 자리로 잡을 것

인니 중앙은행 부총재인 Miranda S. Goeltom은 현재 두 자리 수의 인플레이는 2009년도에 한자리 수로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총재는 국회 예산위원회가 2009년도 국가예산 상 인플레이 목표를 5.8 ~ 6.5%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 수치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반영한 것이며 중앙은행은 최종 목표를 산출해 내기 위해 정부와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를 통제하는 것은 중앙은행 혼자만의 업무가 아니며 인플레이를 억제 하기 위해 금리, 중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최소의무지, 환율 통제 등의 방법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2. 정부관련 경제 이슈



● 정부 Krakatau Steel 기업공개(IPO) 결정

공기업장관인 Sofyan Djalil은 KS Steel을 기업공개(IPO) 하여 민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IPO는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며 본 결정은 현재 국회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장관은 KS Steel의 민영화를 놓고 아직 찬반 양론이 있지만 KS Steel의 생산량을 연간 500만톤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계 회사에게 전략적 매각(Strategic Sales)을 하던지 IPO를 통해 추가 자본을 충당하던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투쟁당(PDIP)은 민영화를 위한 전략적 매각(Strategic Sales)에는 국익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를 밝히고 PT Indosat의 전략적 매각(Strategic Sales)으로 인한 큰 손실을 상기시켰다.

반면 IPO를 통한 PT Telkom과 BRI의 민영화는 이익을 낼 수 있었다.

현재 KS Steel의 민영화 작업이 너무도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투명한 민영화를 위해 IPO가 더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KS Steel은 IPO를 준비하기 위한 6개월 간의 시간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먼저 5%의 지분을 매각하고 추후 40%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며 본 IPO를 통한 추가 자본은 시설 투자가 아닌 기술 투자에 이용될 것이다.

● 보조금 받은 비료, 시장에서 사라지다

Lebak 과 Banten 등지의 공식 비료대리점에서 요소비료 등 비의 파종을 위해 필요한 필수 비료들을 구할 수가 없다. 파종이 늦어지고 병충해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8월의 수확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 정부는 비료 대리점주를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지만 농부들은 이 보조금을 받은 비료들이 기업들에게 팔려나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중소기업 법령 개정안 국회 동의

6/10 국회 본회의는 중소기업 법령 개정안에 동의하였다. 본 개정 법령 하에서 새로운 기업 규모에 대한 정의는,

- 소기업은 부동산 제외 순수 자본이 5천만 루피아 미만이거나 연간 최대 매출 3억루피아 이하,
- 중기업이 부동산 제외 순수 자본이 5천만~5억루피아, 연간 최대 매출 3억

~25억 루피아이다.

또한 본 법령을 통해 대기업, 국영기업, 외국기업들은 잉여 소득을 중소기업지원금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대출, 보증금, 지원금 등의 비용 형태로 처리될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중소기업에 발급하는 각종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고 세제 혜택을 주며 본 법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개인소득세(PPH) 법령 개정

6/10 국회는 개인소득세 중 가장 높은 세율인 35%를 30%로 인하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새로운 세율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연간 소득 범위에 따른 세율도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 연 5천만 루피아: 5%

- 연 5천만 ~ 2억5천만 루피아: 15%

- 연 2억5천만 ~ 연 5억 루피아: 25%

- 연 5억 루피아 이상: 30%

이에 인니 상공회의소 재정분과위원회 장인 Bambang Soesatyo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개인소득세의 과세 세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사업자들은 모두 세금 납부를 피해나갈 생각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세율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향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들과 같이 법인소득세를 현행 25%에서 18%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당국의 소득세 면제 대상에 대한 범위 및 규정은 아직 논의 중이다.

● Sri Mulyani 재무부 장관, 경제조정부 장관으로 겸직 결정

SBY대통령은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이 현재 공석인 경제조정부 장관을 겸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겸직을 위한 법률,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현 에너지광물 자원부 장관인 Purnomo Yusgiantoro도 경제부서의 시니어장관으로서 경제조정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현재 에너지 위기의 극복에 전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되었다.

● Asia-Pacific 2008 개발 리포트 발표

SBY 대통령은 UN 부사무총장과 UNDP 개발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Asia-Pacific 2008 개발 리포트를 발표했다. UNDP는 작금 Asia-Pacific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

는 국가들의 부정부패가 민생에 미칠 수 있는 악 영향을 본 리포트가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조적인 방법들이 서술되어있다고 발표했다. 본 리포트에서 SBY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고 현재의 부정부패를 종식시킬 수 없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UNDP는 Asia-Pacific 역 내에 가장 부패한 집단은 정치인들이며 그 다음이 경찰, 그리고 법무관련 종사자들이 뒤를 잇고 있다고 발표했다. Asia-Pacific 지역의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뇌물을 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 석탄 수출세의 조정, 현재로서는 어렵다

국회 공업 및 상업위원회장 Totok Daryanto 의원은 정부가 석탄 수출세를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석탄의 내수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Mari Elka Pangestu 상무부 장관은 현재 석탄, 니켈, 보오크사이트 광산회사들이 국제시장가격의 상승으로 급격한 이윤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수의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회사들이 체결한 공급계약에 수출세 부분이 이미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급계약서의 작성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이다.

● 안티 Ahmadiyah 시위, 자카르타 교통 정체 극심

3개 부처의 장관의 Ahmadiyah를 불법단체로 인정한 공동 결정문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Ahmadiyah의 해산과 폭력사태를 유발하였던 이슬람 수호전선의 대표인 Habib Rizieq Shihab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다. 수 천명의 시위 인파와 시위 선도자량으로 인하여 대통령 궁이 있는 모나스 ~ 스망기 지역의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보였다.

● 투자청장, 이상적인 법인세 (PPH badan)는 25%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법인세는 25%가 되어야 하며 그 이하는 "tax driven country"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투자청장 M. Lutfi가 말했다. 홍콩의 법인세는 20%이하이며 싱가폴은 향후 2년 이내에 18%

로 인하할 계획이다. 인니의 법인세는 현재 30%이지만 2009년에 28%, 2010년에 25%로 단계적 인하할 예정이다.

● 2008년 1월~5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투자 164.1% 증가

인니 투자청(BKPM)장 M. Lutfi는 2008년 1월~5월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 실현액이 37억불에서 98억불로 작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청장은 2005년 유가 인상 당시 투자실현액수가 30% 감소하였던 것을 상기시키고 현재 인니에 대한 투자 선호는 59.9% 감소하였다고 말했다.

2008년 1~5월 업종별 외국인 투자실현

순위	업종	투자액 (USD)	투자 건수
1	교통, 창고, 통신업	65억	13
2	금속공업, 기계, 전자	4억 9천	47
3	자동차, 오토바이	4억 3천	18
4	무역, 현물	3억 5천	135
5	종이, 인쇄	2억 9천	11

(출처 : 투자청)

2008년 1~5월 지역별 외국인 투자실현

순위	지역	투자액 (USD)	투자 건수
1	자카르타 주	70억	159
2	서부자와 주	15억	136
3	반톤 주	2억 7천	44
4	리아우 주	2억 4천	6
5	동부 자와 주	1억 8천	25

(출처 : 투자청)

2008년 1~5월 국가별 외국인 투자실현

순위	지역	투자액 (USD)	투자 건수
1	모리셔스 공화국	64억 7천	3
2	일본	8억 2천	57
3	싱가폴	6억	64
4	말레이시아	2억 2천	30
5	독일	1억 5천	8

(출처 : 투자청)

● 실종/희생자 조사위원회, 무크디의 체포로 무너진 사건 끝난 것 아니다

지난 2004년 9월 발생한 인권운동가 무너 살인사건의 관련자로 전 국가정보부 차장 무크디가 체포되었다. 하지만 실종/희생자 조사위원회는 무크디의 체포로 이번 사건이 종결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그에게 지시한 배후를 밝혀 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무니르 살인죄로 징역 20년 형을 받은 빨리까르뿌스를 살인교사 한 혐의로 무크디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거와 목격자는 이미 확보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무크디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반부패형사처벌특별법원 법안 지연

인도네시아 국제 투명성 사무국 Rizal Malik과 반부패위원회의 고문인 Abdullah Hehamahua는 반부패 형사처벌을 위한 특별법원 법안 검토가 별 다른 이유 없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려진 지연의 원인은 법무부 장관이 매 페이지 싸인 하는 것을 잊어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Abdullah는 “반부패형사처벌 특별법원이 반드시 전국 400곳의 법원과 33곳의 고등법원에 모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 법원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부패사건들은 일반 사건과 같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보통법원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는데 까지 수백번은 오르락 내리락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과연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가?”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권법무장관인 Andi Mattalatta는 법원 설치 장소와 누가 특별 판사가 될 것인지가 현재 법안 검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일단 주정부 급에 특별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법안의 내각회의 검토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

● 중앙은행(BI) 부패방지위원회(KPK)와 협조

6/23 중앙은행(BI) 총재 Boediono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방문하여 은행권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감독과 부정부패 관련 형사사건 발생시 협조하며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총재는 중앙은행일지라도 부정부패 혐의가 있다면 조사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BI 부총재인 Siti Chalmah Fadrijah는 현재 은행권에 대규모의 자금이 잘못 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금들은 벌써 국고로 환수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인니로컬 / 개발관련 이슈



● 인니 전력 공급에 심각한 문제

공업부장관인 Fahmi Idris는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발전소가 완공되는2012년까지 전력난은 피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연간 10% 증가하고 있는 자와 지역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2차 10,000MW급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중 30%는 석탄, 나머지는 지역, 수력,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할 계획이다.

국영전력공사 PLN의 사장인 Fahmi Mochtar는 본 프로젝트를 위하여 Global Bond와 국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며 총 100조루피아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PLN이 최근 건설한 복합화력발전소들이 최대 전력생산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6년 11월 완공된 Cilacap 화력발전소는 중국의 Chengda Engineering Corp. 에서 510만 불의 자본을 들여 완공했다. 하지만 현재 고장난 상태로 600MW의 생산량에 훨씬 못 미치는 전력 만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자와와 발리의 전력소비량은 17,100MW 이나 생산량은 16,000MW에 불과하다.

● 유럽연합 새로운 수입규정, CPO 수출 위협한다

화학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에 대한 EU의 새로운 규정이 인니 CPO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규정(REACH)은 해바라기유나 콩기름과 달리 CPO를 비식용 제품으로 분류하

여 EU 화학국(ECHA)에 의무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따르면 CPO의 수출은 등록을 마친 소수의 수입업자에게 독점되며, 수출비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전 등록은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것이며 인니는 12월 기한으로 CPO를 본 리스트에서 제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Qatar Telecom, Indosat 지분 40.8% 인수

Qatar Telecom은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텔레미디아 그룹(Temasek의 자회사) 소속의 Asia Mobile Holding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니 국영통신회사 Indosat의 지분 40.8%를 미화 18억불에 인수하였다. 이로서 Qatar Telecom은 Indosat의 최고 주주가 되었다.

국영기업부장관인 Sofyan A. Djallil은 카타르의 인니 통신 사업분야 진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현재 인니는 중동지역의 자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동 지역에서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Indosat에 대하여 인니 정부는 아직 1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인이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Temasek은 인니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니 통신업 독점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으나 인니 정부로 벌금을 내는 것 보다는 매각을 선택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도의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비난했으나 결국 인니 정부는 본 매각을 인정하였다.

Indosat의 주가는 주당 6,500루피아에 거래되어 15%정도 상승하였다.

● Tuban지역 망그루브숲 104헥타르 유실

지난 한달 사이 자바해의 높은 파도로 인하여 Tuban군의 망그루브숲이 최소 104헥타르 이상 유실되었다. 최근의 파도로 인하여 6km 연장의 방조제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2006~2007년 해안에 조성된 수천그루의 망그루브 나무가 피해를 입었다. 이 지역은 2004년 이후로부터, 국가 재정 및 외국의 원조로 자연재해의 방지를 위해 망그루브숲을 복원하고 있다.

● 북부 수마트라 아라비아 커피 국제적 인기

북부 수마트라산 아라비아 커피인 'kopi mandailing'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시장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동 지역은

연간 2만~2만5천톤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매우 저조하다. 베트남의 경우 수확량이 1.5ton/ha이나 동 지역은 1ton/ha에도 못 미친다. 업계는 저생산성의 이유를 자본 및 지원의 부재로 인하여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 커피를 연구하는 연구소는 동부자와 Jember지역에 커피, 카카오 연구센터 한곳이 있을 뿐이다. 농부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가격이 나쁠 때에는 품질에 신경 쓰지 않으며 가격이 좋을 때에는 생산량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금년 4월까지 북부수마트라는 총 21,969ton, 미화 7,168만불 규모의 커피를 수출하였다. 이중 아라비카 커피의 수출액은 6,507만불이다.

● 인니 조류독감 발생 현격히 줄어들다

인니 보건부 장관 Siti Fadilah Supari는 지난 반년 동안 인니 조류독감 감염자가 2005 ~ 2007년 대비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조류독감 피해가 줄게 된 것은 인니 국민의 조류독감의 위험에 대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장관은 “다행히도, 지금은 이미 조류독감 징후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안내자료가 배포되어 있으며, 호주, 독일, 인도, 중국 및 그 외의 국가들로부터 지원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당시 외국 언론에 의해 보도된 북부 수마트라의 한 가족 감염 기사로 인해 인니의 보건 위상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사실 당시 보도된 8명의 가족 중 7명에게는 인간감염 증상이 없었으며 양성 반응을 보인 1명 역시 두 달 반의 치료 후에 완치되었다고 밝혔다.

● 족자 주민들 자트로파 사업성 확신하지 못하다

족자 지역의 주민들은 낮은 수익성과 최근 가뭄으로 인한 작황의 실패로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자트로파의 사업성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군웅끼들 군 정부 임업부는 자트로파 작물을 이용한 지역 내 에너지 자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70ha의 자트로파 농장을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도 매 ha당 2,500그루의 자트로파 나무를 파종하였으나 이 중 60%는 바위가 많은 토질과 가뭄으로 인하여 이미 실패하였다.

족자의 Pembangunan Nasional Veteran 대학 농업 연구소는 바이오 디젤의 생산비가 여전히 너무 높다는 의견이다. 리

터의 바이오디젤 연료를 얻기 위하여 4kg의 자트로파 열매가 필요하다. 1리터의 연료를 얻기 위해 농민들은 kg 당 1,100루피아를 지불하였으니 총 4,400루피아가 소요된 것이다. 다른 생산원가는 미포함이다.

현재 누사뎡가라 지역의 볼록과 꼬따 꾸방시의 바이오디젤 공장에서는 하루에 1톤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고 있으며 리터당 4,500~5,000루피아에 판매하고 있다.

● 재무부, 지열 발전 공기업 설립 검토 중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 될 10,000MW 추가 전력공급 사업 중 지열발전으로 5,000~6,000MW의 전력을 생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2008년 내에 지열발전을 담당하는 공기업 설립을 구체화 할 예정이며 현재 재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 중이다. 지열 발전 공기업은 국영 석유공사(Pertamina)나 국영 전력공사(PLN)에서 분리되어 설립되겠지만 설립 후에는 국영기업장관이 관리하게 된다. 현재 인니 지열 발전은 국영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Pertamina Geothermal Energy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5개 개발 지역에서 80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4. 한국 관련 이슈



● 4월 수출입, 한국의 대 인니 무역수지 소폭 흑자 기록

인니 통계청(BPS)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FOB \$3억4,100만 수출하여 4월 인니의 제 10위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 역시 CIF \$3억 5,400만 규모로 인니의 제 10위 수입 대상국으로 집계되었다. 4월 한국의 대 인니 무역수지는 1,300만불 흑자를 기록했다.

● 한국, 남부 깔리만딴의 산림에 농장개발(HTI) 관심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자본과 인니 국내의 자본들이 남부 깔리만딴의 산림지에 농장개발(HTI)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남부 깔리만딴 주정부 산림청장 Suhardi Atmorejo는 한국 회사 중 한 곳이 산림부에서 개발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어도 2개의 로컬 회사 역시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남부 깔리만딴 주정부는 매스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허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Tanah Bumbu군과 Banjar 군에 개발하기 좋은 산림지가 아직 남아있으며 16개의 산림 농장개발권 획득 회사 중 현재 10개회사 만이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부 깔리만딴의 개발 가능한 산림 면적은 총 400,000ha에 이른다.

● 중부자와 태권도 팀, 한국에서 훈련

중부자와 태권도 팀이 한국에서 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총 14명의 선수들은 3주 동안 훈련을 위해 한국의 충청북도로 떠나게 된다. 그 곳에서 선수들은 한국 코치에게 태권도 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 외국계 자본 여전히 인니 은행에 관심

중동계 은행인 Al Baraka Banking Group, 중국계 은행인 Bank of China, 한국계 은행인 Hana Bank가 부지런히 중앙은행을 방문하고 있다. 인수할 인니 로컬은행을 물색하기 위해서이다. Al Barakah 와 하나은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니 은행업계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Al Barakah 은행은 PT Bank Kesawan Tbk를 1년 넘게 due diligence test 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PT Bank Bintang Manunggal을 인수한 후 한 곳의 은행을 더 물색 중이다. 현재의 계획은 하나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더 큰 은행을 찾아 합병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자산규모 14조 루피아 정도에 인니 전역의 대도시에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중형 은행을 찾고 있다. 인니 로컬 은행들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환영하고 있다. Bank Bukopin은 전략적 외국계 투자자를 찾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계 은행을 원하고 있다.

5. 국제 / 투자관련 이슈



● Aus-Aid 와 일본 정부, 인니 송출노동자 시스템 위한 자금 지원

호주 국제개발협회(Aus-Aid)와 일본 정부는 인니 송출노동자의 훈련과 자료관리, 인니 노동자 대상 안내를 위한 협회 결성을 위해 230억 루피아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인니 노동자 송출보호청(BNP2TKI)은 인니의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이나 비용 등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호주와 일본의 지원으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00만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불법 노동자를 포함한다면 600만명에 육박한다.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월 평균 80만~200만루피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년으로 환산하여 960만~2,400만 루피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Aus-AID 인니 장학생 선발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2008 Australian Development Scholarship(ADS) 을 선발한다. 재인니호 주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 경제, 민주주의, 법률, good governance, 인적자원투자, 보건, 교육, 안보, 평화 분야의 박사 과정 300명을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본 장학제도가 정부간 사업으로 진행되며 본 제도의 효율은 장학제도로 학업을 마치고 인니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최소 GPA 2.9 이상, IELTS 5.0 혹은 Toefl 500점 이상이다.

● 인도네시아 유해폐기물 이동금지 조약에 동참

2008년 6월 23~27일 기간 동안 발리에서 개최되는 Basel 회의를 통해 자국 발생 유해 폐기물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는 Basel조약에 동참하기로 결정 하였다.

많은 선진공업국들이 자국 내 유해물질을 폐기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Basel 조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인니는 유해 폐기물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이동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미래를 위해 본 조약에 참여한다고 Emma Rachmawati 환경장관은 밝혔다.

현재 OECD 회원국들은 3억톤 이상의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 증가될 것이다. 이를 위한 각국의 현명한 처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네덜란드, 자카르타에 홍수방지 수로 건설

로테르담시 정부는 자카르타 특별주의 홍수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3개의 수로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미 4차례 자카르타를 방문한 적이 있는 Ivo W Opstelten 로테르담 시장은 자카르타와 로테르담시는 이미 22년에 걸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대홍수 이후에 자카르타 시의 홍수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본 프로젝트는 홍수에 대비한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진행될 것이며, 건설, 전문가 지원, 주민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자카르타의 배수시설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심이 얕다.

로테르담시는 향후 계속적으로 수로, 수문, 펌프 등 모든 시설을 점검하여 홍수 방지를 위해 자카르타와 협력할 예정이다.

● 인니 산림 화재 대비 일본이 5억Yen 지원 해 줄 것을 기대

산불방재국의 Sonny 국장은 산불진압 훈련과 연구를 위하여 일본이 5억Yen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니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4억 루피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2007년 일본은 인니의 산불 통제를 위하여 3억 Yen을 지원하였다. 이 지원금은 서부 칼리만탄, 리아우, 잠비 지역의 산불통제 프로그램을 위하여 쓰여졌다. MS Kaban 산림장관은 4년 전부터 인니는 유

럽과 호주로부터 산불방지를 위한 원조를 받고 있으나 이전에 받은 원조는 올 해 말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독일 정부, 인니 부채 보건 분야 지원금으로 변경 합의

독일 정부는 Debt2Health 프로그램으로 인니의 부채 5천만 유로를 탕감하고 그 중 인니 보건을 위해 2천 5백만 유로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의 보건 분야에는 AIDS, 결핵, 말라리아가 포함된다. 인니에는 현재 17만명의 에이즈 양성 반응자가 있으며 매년 15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1억명의 주민이 말라리아 취약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Global Fund는 6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니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억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중 1억8백만불은 이미 집행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고 있다.

Global Fund는 현재 호주 정부와도 인니의 부채를 보건분야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협상 중이며, 호주 정부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본 인니 항구보안 분야에 원조

지난 6/24, 일본정부는 인니 항구의 보안시스템 보안을 위해 467억 루피아를 원조하기로 하고 인니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및 아프리카 총국장인 Primo Alui Joelianto와 노트를 교환하였다.

일본 대사는 금번의 원조는 인니 지역의 8개 주요항구에 대한 테러방지를 위한 두 번째 원조라고 밝혔다.

8개의 주요항구는 Belawan, Dumai, Tanjung Pinang, Palembang, Teluk Bayur, Pontianak, Benoa 그리고 Makassar 항이며 본 원조로 CCTV, X-Ray 검색대 등을 추가/보완 하게 된다.

Primo 총국장은 2002년 이후 인니 해상은 심각한 테러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 항구들은 본 원조로 국제 해양협회(IMO)의 규격에 부합하는 보안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원조는 내년부터 집행될 것이며 향후 인-일 투자와 무역 분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인회원 등록 안내

1. 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써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결의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2. 등록절차

구비서류
여권, KITAS (KITAP) 사본 각 1부.
사진 (2x3) 2장.
등록신청서 작성 (한인회 비치)



한인회원증 발급

3. 회비납부

- 개인 Rp 120,000 / 년, 가족 Rp 200,000 / 년

4. 회원혜택

- 의료 협정 체결 병원(국내)에서 진료 시 의료혜택(표-1 참조)
- 한인회 지정 가맹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추후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 공지)
- 한인회 도서관 이용, 무료 대출
- 무료 법률상담실 이용

의료혜택 병원

번호	의료기관	전화/팩스	의료혜택사항	지참서류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361-5114 팩스: 02)313-9028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여권
2	중앙대학교 의료원 (용산, 필동)	전화: 02)748-9900 팩스: 02)798-474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20% 할인 (부속 필동병원에서 시행) - 선택진료시 선택진료료의 30% 할인 (입원에 한함)	한인회원증
3	한국원자력연구소	전화: 02)970-1622 팩스: 02)970-1294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4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전화: 02)2639-5021 팩스: 02)2676-0980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전화: 02)2650-2611 팩스: 02)2650-5051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한인회원증
6	경희의료원	전화: 02)958-9618~9 팩스: 958-9605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 종합건강진단 : 20% 할인 (여자: 유방, 자궁암검사 포함) - 팩스를 이용한 건강상담	한인회원증 진료의뢰서
7	서울 아산병원	전화: 02)3010-3114 팩스: 02)3010-3113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일부항목은 제외)	한인회원증
8	한양대학교 의료원 국제협력병원	전화: 02)2290-9550~2 팩스: 02)2290-9567 ich@hmc.hanyang.ac.kr	- 국민건강보험수가 적용	불필요

국민건강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

- 국민건강수가 :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요양급여비용
- 일반수가 : 1) 행위료 : 국민건강수가의 2배 적용
2) 의약품, 진료재료 등 : 국민건강수가의 1.5배 적용
3) 일반수가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외국인, 재외국민

자신을 더 높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관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카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탐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글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4224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	-----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쌍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컨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술 한의원 7278 7410
신농새 한방병원 7280 1075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전' 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카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카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기존 250 6532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대감집 726 4356
대장금 551 4311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동해 725 2856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뿐독인다 7592 0654
 끌라빠가딩 4585 4316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카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브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리랑(리브찌까랑) 8990 1662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 4586-6415 F: 4586-641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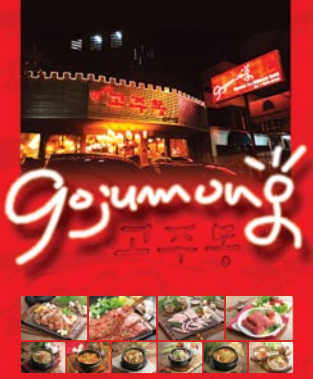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Gojumeong

Have ever tried real Korean grill?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 7-9 Jakarta Selatan

Berlitz Helping the World Communicate



DO YOU SPEAK
Berlitz
ENGLISH & INDONESIAN?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영어, 인도어 학습법

Hotel Intercontinental MidPlaza Jakarta
Shopping Gallery LG R-26 Jl. Jend. Sudirman Kav. 10-11 JKT
Phone : 021-2514589 E-mail : berlitz@dnet.net.id

Plaza Dua
Jl. Metro Duta Niaga BA 2/43 Pondok Indah JKT
Phone : 021-7510452 E-mail : berlitz2@dnet.net.id

Website : www.berlitz.com

한인뉴스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동)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횡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칠보산	4585	1161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점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A 갈비	7278	0550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8370	0455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425	4931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한컴	5435	3007
www.indoweb.org	5694	0805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썬더 하숙	726	8775
-------	-----	------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 케어(리베헤라와퍼)	9815	9980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4586	1233
뽀뽀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베헤라와퍼)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KAYA TOUR		
DongWha tour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UNDA DUTA		
SATYA TOUR	283	305
RED CAP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jms IB Curriculum
Jakarta International Multicultural School

자녀의 창의력과 뛰어난 소질 개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등학교



8학년 까지 지금 수강등록 합니다!
오픈하우스, 2008년 7월 26일, 오전 10 - 11:30
ISCI Complex, Jl. Ir. H. Juanda No. 2, Ciputat 15419
Ph. 021 7444 864, Fax. 021 7411 222,
info@jmsch.org www.jmsch.org

광고문의

521-2515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열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파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머르타나디(가주점)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롱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Golden Jade 특징 - 부처, 벽을 넘다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 진귀하고 전설적인 이 요리(탕)는 삭스핀, 전복, 오이, 인삼 등 산해진미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Golden Jade에선 여러분이 요리를 즐기시는 10 시간 전부터 탕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장시간 끓이는 이 요리는 혈액순환 촉진, 심폐 향상, 숙면 촉진에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회 지정 가맹점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 레스토랑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이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TER	10%	
뉴서울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TER, BCA	5%	



일제 강점기 만주 벌판을 무대로, 고향을 등졌지만 결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 명(살인 청부업자, 현상금 사냥꾼, 열차털이범)의 주인공이 서로 쫓고 쫓기며 생존해가는 이야기.

‘좋은 놈’ 도원(정우성)은 웨스턴에 자주 등장하는 바운티 헌터 (현상금 사냥꾼). 맹수, 현상수 배범 등 돈 되는 건 다 사냥한다고 냉철하게 말하지만 한 편으로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명사수이자 쿨 가이, 좋은 놈이다. ‘나쁜 놈’ 창이(이병헌)는 롱 코트에 검은 장갑이 특징. 총이면 총, 칼이면 칼, 무엇이든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는 필요하다면 살인도 밥 먹듯 할 수 있는, 뼈 속까지 나쁜 놈이다. ‘이상한 놈’ 태구(송강호)는 만주 벌판에서 말 대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열차털이범. 목표를 향하여 저돌적으로 치고 달리다 보니, 문제와 말썽의 진원지에 늘 존재하는 잡초같은 생명력의 독고다 이로, 한 마디로 이상한 놈이다. 이처럼 개성이 뚜렷이 대별되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범상치 않은 캐스팅 만큼이나 캐릭터들도 입체적인 면모를 선보인다.



새로워야 영웅이다!

전세계를 놀라게 할 까칠한 슈퍼히어로 ‘한콕’

엑스맨,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의 능력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까칠한 성격을 겸비한 슈퍼 히어로 한콕(윌 스미스). 그는 위험에 처한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이지만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언행과 과격한 행동으로 기피 대상 1호가 된다. 우연히 목숨을 구해준 홍보전문가 레이(제이슨 베이트먼)가 땅에 떨어진 그의 이미지를 회복시켜 주기로 약속하면서 차츰 슈퍼히어로로서의 면모를 찾아가는 한콕. 하지만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레이의 아내 메리(샤를리즈 테론)와 가까이 있을수록 자신의 초능력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김은미 편집위원

추천



연을 쫓는 아이

“한 가지 죄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도둑질이다……. 네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진실을 알아야 할 다른 사람의 권리를 훔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나한테 해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를 땅에 묻은 지 15년이 지난 지금 바바가 도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도둑 중에서도 가장 나쁜 도둑이었다. 그가 훔친 것은 신성한 것이었다. 내게서는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 권리를 훔쳤고 하산에게서는 신분을 훔쳤으며 알리에게서는 명예를 훔쳤다. 오로지 그 자신의 명예와 긍지를 위해서.

(본문중)

외교관이었던 부친과 고등학교 선생님인 모친을 둔 저자, 할레드 호세이니 (Khaled Hosseini)는 198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후, 의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뉴욕 타임즈 120주 장기 베스트셀러인 “연을 쫓는 아이(Kite runner)”는 그의 첫 장편소설이며 올해 마크 포스터 감독에 의해 영화로 상영되기도 하였다.



그는 두 번째 장면, “천개의 찬란한 태양”을 펴낸 이후, 현재 유엔난민국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다.(중략)

연 날리던 날, 골목길에서의 망설임을 평생 후회하고 고통스러워 하던 아미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평생에 걸쳐 속죄해야만 했던 바바. 아미르는 항상 아버지인 바바를 거인처럼 느끼고, 경외하였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얻으려 애썼으며, 중국에는 역시 친구이자 형제였던 하산을 버렸고,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 바바를 닮지

않았다고 괴로워했으며, 바바가 그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밝혀지는 비밀 속에서 사실은 아미르와 바바가 무언가를 ‘훔쳤다’는 데에서, 또 나의 표현으로 하자면 ‘자신이 한

선택을 평생 후회한다’는 데에서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하나의 사건을 평생에 걸쳐 갚아 나가려는 진지한 삶의 태도에서도 그들은 너무나 닮아 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하여 성장한다’고 한다.(중략)

이 이야기가 유독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아픈 과거, 어수선했던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그 시절과 많이 닮아서 일 것이다.

혹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영원한 손님으로 살며, 일상에서 부딪치는 인종갈등과 차별에 대해 만성불감증이 된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게 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판목 옆으로 가득 찬 큰 삼베 보따리를 등에 매고 흙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을 가리켰다.

“저게 진짜 아프가니스탄이예요, 선생님. 저게 내가 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고요.

당신요? 이곳에서 당신은 항상 관광객이었어요. 당신이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콩 반쪽의 행복

저자 수지 모건스턴 | 역자 유민정 | 그림 세르주블록 | 출판사 시소

‘나눔’은 행복을 향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이 책에는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창작동화 10편이 실려 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색깔을 빛내는 10인의 작가는 어린이가 ‘나눔’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제작인 「콩 반쪽의 행복」은 진정한 부자는 결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풍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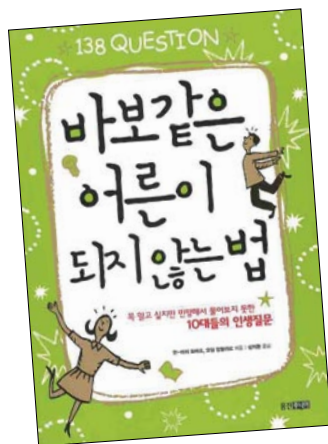
바보같은 어른이 되지 않는 법

저자 안 마리 토마조, 오딜 앙블라르 | 역자 심지원 | 출판사 웅진주니어

똑똑한 어른이 되는 질문 138가지를 모았다!

사는게 괴로운 10대를 위한 인생 고민해결 프로젝트 『바보같은 어른이 되지 않는 법』. 사춘기 청소년들과 그런 사춘기 청소년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폭행을 당하는 여자친구를 지켜주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사춘기 청소년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와 구체적인 답을 얻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모았다.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상담해 왔던 전문가들이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틀에 박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준다. 총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우정을 지키는 법, 사랑에 눈뜨는 법, 변하는 몸을 더 사랑하는 법, 사춘기를 행복하게 지나가는 법 등 알찬 질문과 해답을 담고 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 박경리 유고시집

저자 박경리 | 그림 김덕용 | 출판사 마로니에북스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유고시집!

박경리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2008년 5월에 타계한 소설가 박경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고 남긴 39편의 시를 모아 엮었다. 미발표 신작시 36편과 타계 전에 ‘현대문학’ 4월호에 발표한 3편을 묶고, 한국의 대표적 화가 김덕용의 정감 어린 한국적 그림을 더했다.

박경리는 이 시집을 통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39편의 시에는 그녀의 유년의 기억, 가족에 대한 기억, 문학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 자연에 대한 존경, 말년의 생활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사회에 관한 시들지 않는 관심과 잘못된 세상에 대한 꾸짖음도 엿볼 수 있다.

이 유고시집은 박경리의 문학적·사회적 관심의 방향과 깊이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평생 토지를 꺼안고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생생한 시어로 풀어놓는다. 박경리의 유년시절과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30여 장을 책의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7월 공지 사항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

1.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인터넷 온라인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2. 신청인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인의 여권 사본(신원정보란 및 거주국 입출국 스탬프 날인란 포함)을 등록 공관에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에 해당되며,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법적 의무이며, 유사시 긴급 연락망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권행사, 재판, 대학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확인, 상속시 및 은행권 등에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에 갈음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등록자인 경우 우리대사관 영사과에 적극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외국민등록부 등록 및 발급에 관한 상세 안내는 우리대사관홈페이지(www.mofat.go.kr/indonesia) ‘영사업무’ 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KS SUMMER SCHOOL 수강생 모집

1. 대상
 - (1) 인도네시아 거주 한국 학생(본교생 및 타 학교 재학생 중 중등과정 해당자 : 7~11학년)
 - (2) 평생교육 과정 희망자는 한국 교민 누구나 가능
2. 시행 기간 : 2008. 7. 7 ~ 7. 18 (월~금 10회 수강, 최대 3과목 수강 가능)
3. 시행 시간
 - 1교시 : 7 : 30 ~ 9 : 00 (90분)
 - 2교시 : 9 : 20 ~ 10 : 50 (90분)
 - 3교시 : 11 : 10 ~ 12 : 40 (90분)
4. 개설과목
 - (1) 평생 교육 과정(성인)

영어 기초회화, 아이와 함께 컴퓨터 하는 엄마, 일본어 기초

대학특례입학 관련 서류 영사확인 안내

1. 한국의 각 대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는 대학교 마다 다르므로, 먼저 대학교에 확인하여 어떤 서류를 영사확인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학생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B. 부 또는 모의 재직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
 - C.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허가서, 세금관련 영수증
 - D. 기타서류

영사확인 받을서류	수수료	준비사항
(A)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Rp. 19,200	현지 인도네시아 학교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인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국제학교 (JKS 포함) : 원본 제출하거나, 사본일 경우 사본을 인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B)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Rp. 19,200	반드시 원본을 인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사본 불가)
(C) 사업자 등록증 회사설립 확인서 세금관련 영수증	각 Rp. 19,200	영문 번역한 후 인니어 문서(사본)와 영문번역서 모두를 인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제출
(D) 기타		

3. 제출방법: 영문번역문(상단), 인도네시아 문서(하단)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4. 제출부수: 발급요청 부수 + 1부(사본)대사관 보관용
5.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2일
6. 관련근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 32조, 34조, 35조

(2) 중고등학교 과정

- 국어, NIE, 한국어 능력 향상반, 논술, 특례국어, 원리로 배우는 한자, 수학, 영어(Toefl Bridge, Writing, Speaking, Step by step, Preparation, Toefl, 영어 속독, SAT), 화학, 일본어 기초, 스킨스쿠버
4. 수강료 : 과목당 Rp 600,000
 5.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2008. 6. 1 ~ 2008. 6. 21, JKS 행정실 (본교생은 담임 교사)
 6. 문의 :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담당자 오현주 0813 8669 6799, 행정실 021-844-4958



한인회 문화연구회 공고

149회 문화탐방

장소 : 미정

일시 : 7월 22일 경

150회 -151회 문화탐방

장소 : Cirebon

일시 : 8월 11일 경

연락처: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2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한인회 무료법률상담 안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4시 (1시간)

상담자 : 이승민 인도네시아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재인

(YSM & PARTNERS 대표변호사)

장소 : 한인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Tel. (021) 525-5959, 휴대폰 : 0816-1911245

상담 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제, 가사, 상속, 지적재산

권, 소송·중재 등 법률문제 전반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 ◆진주 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 침부)
-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720-3246
HP. 0816-873-176

대한항공 한국어, 영어 24시간 서비스 실시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은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월부터 인도네시아 지역(021-521-2180)에 새로운 언어별 서비스 제공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어별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전화 예약 서비스에서 한 단계 향상된 것으로 고객 스스로 음성 안내에 따라 선호하는 언어(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선택하고 직원과 직접 연결되어 해당 언어로 편리하게 예약,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확인, 항공편 스케줄 조회 및 항공편 출·도착 운항 정보 등 각 분야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별 서비스 중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에는 1년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직원과 상담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어와 일어 서비스가 추가되어 보다 편리하게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지점으로 연결을 원할 경우에는 언어와 상관없이 1번 지점 연결을 선택하면 기존과 같이 지점 근무시간 내에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선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3번 : 영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 4번 : 중국어 서비스
- 5번 : 일본어 서비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항공편명	구 간	출발 / 도착시간	운항요일
KE628	자카르타 > 서울	21:40 / 06:40+1	매일
KE627	서울 > 자카르타	15:05 / 20:10	매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3:30 / 11:30	월
KE629	서울 > 덴파사르	20:10 / 02:10+1	일
KE630	덴파사르 > 서울	00:30 / 08:30	화,목,토
KE629	서울 > 덴파사르	17:10 / 23:10	월,수,금

2. 기간: 2008년 3월 30일 ~

3. 전화번호: 021) 521-2175 / 2176 / 2177 / 2180

4. Fax 번호: 021) 521-2184 / 521-2179

5. E-mail: hyunmelee@koreanair.com (한국어)
stuty@koreanair.com (영어/인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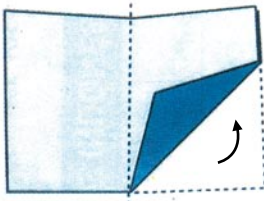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79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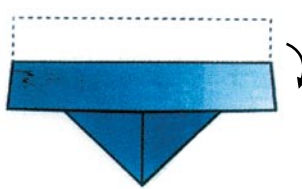
화물을 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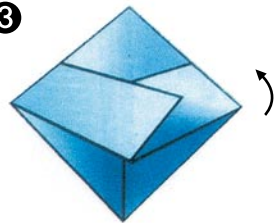
www.hmm21.com에 접속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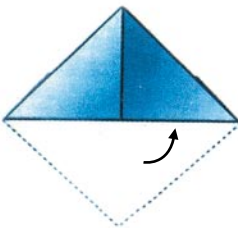
Cyber CSC를 클릭

③



선적예약

④



화물운송

⑤



화물추적

⑥



도착확인

클릭한번으로 선적예약에서 화물추적까지-현대상선 Cyber CSC (온라인 고객 서비스 센터)

지금 현대상선의 홈페이지(www.hmm21.com)에 접속하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상선 Cyber CSC만의
선진 물류 시스템**

- 선적 화물에 대한 예약 및 추적, 도착 등 각종 운항정보 제공
- 선하증권 발행 이전에 온라인상에서 선하증권까지 조회가능
-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한 맞춤형 EDI(전자문서교환)서비스
- 화주에게 가장 적합한 운임과 스케줄을 제공하는 맞춤서비스
- 화주별 수출입 품목 및 화주별 실적까지 제공하는 VIP리포트

현대상선주식회사

WISMA BSG, 6th FL, J.L. ABDUL MUJIS NO.40, JAKARTA 10160
TEL:350-5360/EXT, 385-5372/DIR, FAX:344-0865, 384-0674

HD MIGHTY

TRUCK



PT. KORINDO MOTORS
JL. Raya Serang Km 23-24, Cibadak, Cikupa,
Tangerang 15710, Banten, Indonesia
Ph. +62 21 596 0445 | Fax. +62 21 596 2118

